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를 위한 목회 방법론
: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정찬일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5월

Copyright © 2022 Chanil Ju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Ministerial Method for Ubiquitous Church

: A Case Study of Hansomang Church, Paju, Korea

Chanil Jung

Hansomang Church, Paju

The church has continued to change with the times and cultures. When the gospel, the essence of the church, was altered, a religious reform took place. However, the change in the non-essential form was necessary for missionary work and was always accepted within the church. Korean churches are moving beyond emerging churches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to new churches again. The church is a church where every place of worship becomes a place of faith, anytime, anywhere, and somehow. The so-called ubiquitous church is that. This study studied the pastoral methodology necessary to convert the current church into a ubiquitous church, the standard of this new church.

Through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5G and IOT, the ubiquitous revolution in which electronic and physical spaces become one space and objects, spaces, systems, and people are organically connected has already begun. Just as new churches emerge whenever social changes such as the urban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et revolution occur, ubiquitous societies will demand the emergence of new churches accordingly. The COVID-19 pandemic strongly pushed the Korean church into the demands of such period change. However, there are not only advantages to ubiquitous

society and churches. Therefore, theological basis and specific pastoral methodology of the ubiquitous church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proposed.

In this study, the case of Hansomang Church was selected as the pastoral methodology of the ubiquitous church. Since Hansomang Church advocates a "two-winged church" called "worship" and "small group," it focused on how worship and small group meetings were converted online.

A survey was conducted on believers who experienced online worship and online small group meeting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church's religious activit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change in perception was thought to be a religious positive change.

I hope that this thesis will contribute as one of the ways to help churches and pastors preparing for the transition to ubiquitous churches.

국문초록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를 위한 목회 방법론

: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찬일

한소망교회, 과주

교회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비본질인 ‘형태(Form)’의 변화는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교회 내에서 언제나 수용됐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이머징 교회를 넘어서서 또다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예배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는 교회이다. 이른바 유비쿼터스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의 교회를 이 새로운 교회의 표준인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려 할 때 필요한 목회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5G와 IOT의 출현 및 발전을 통해 전자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되어가고 사물, 공간, 시스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도시혁명과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등 사회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교회가 출현했듯이 유비쿼터스 사회는 그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요구할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사태는 한국교회를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

속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사회와 교회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유비쿼터스 교회의 신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목회 방법론이 더욱 연구되고 제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교회의 목회 방법론으로 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한소망교회가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기에 특별히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경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교회의 신앙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인식 변화를 신앙의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이 유비쿼터스 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감사의 글	xiii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이해	6
유비쿼터스에 대한 정의	6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징과 장단점	9
III.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	17
유비쿼터스 교회의 신학적 근거	17
유비쿼터스 교회의 발전과정	23
유비쿼터스 교회의 장점 및 가능성	30
유비쿼터스 교회의 단점 및 위험성	37
IV. 유비쿼터스 교회의 목회 방법론(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49
한소망교회의 교회론과 유비쿼터스	49
유비쿼터스 예배의 방법론	53
유비쿼터스 소그룹 모임의 방법론	71
V. 유비쿼터스 목회에 대한 설문 내용과 분석	88
설문 목표	88

설문 개요	89
설문 결과 및 분석	90
VI. 결론	112
요약 및 평가	112
제언과 결론	115
참고문헌	118
부록	121

표 목차

<표1> 정보기술과 사회의 발전단계	26
<표2> 전면 비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예배사역 단계	57
<표3>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목장모임 매뉴얼(40분)	76
<표4>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목장모임 매뉴얼(80분)	77
<표5>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심방 진행표	85
<표6> 한소망교회 최근 5년간 소그룹 모임 평균 참석인원	86
<표7> 설문 개요	90

그림 목차

<그림1> 제4차 공간 혁명 “유비쿼터스 혁명”	7
<그림2>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대상별 거래 규모	13
<그림3> 대체 예배드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33
<그림4> Covid-19 종식 후 예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34
<그림5> 온라인/방송 예배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35
<그림6> 주일성수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 조사	36
<그림7> 온라인 예배 불참 사유	40
<그림8> 2012년 한소망교회 온라인 봉헌 후보 안내	53
<그림9> 2022년 한소망교회 온라인 봉헌 후보 안내	55
<그림10> 온라인 예배 10분 전 안내 문자	59
<그림11> 예배장소 세팅을 위한 ‘꾸며줘 홈즈 이벤트’	60
<그림12> 온라인 예배 준비 안내 화면	61
<그림13> TV 화면으로 예배하는 방법 안내	62
<그림14> 온라인 예배 ZOOM 참여	63
<그림15> 온라인 예배 유튜브 댓글 창	65
<그림16> 새들백 교회의 온라인 커넥션 카드	67
<그림17> 개인 성찬 키트	70
<그림18> 온통목장의 심벌	71
<그림19> 한미소의 사명과 비전, 심벌 소개	72
<그림20> 온라인 소그룹 모임 ZOOM 사용법(리더용) 영상	74
<그림21> 온라인 소그룹 모임 ZOOM 사용법(구성원용) 영상	74

<그림22> 카카오톡을 활용한 소그룹 모임 전 사진 나눔	75
<그림23> 한소망교회 온라인 소그룹 모임 예시 영상	78
<그림24> 한소망교회 소그룹 모임 온라인 보고서	80
<그림25> 한소망교회 소그룹 온라인 보고서 작성방법	81
<그림26> 온라인 심방 안내지(동행자용)	83
<그림27> 온라인 심방 안내지(대상자용)	83
<그림28> 설문 응답자들의 나이 결과	91
<그림29> 설문 응답자들의 한소망교회 출석 년수 결과	91
<그림30> 설문 응답자들의 소그룹(목장) 활동 년수 결과	92
<그림31> 설문 응답자들의 예배 출석 외 사역(섬김) 현황 결과	93
<그림32> ‘7. 주일예배는 등록된 본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결과	94
<그림33> ‘8.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한다’ 결과	94
<그림34> ‘9.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현장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결과	96
<그림35> ‘10. 자유롭게 드리는 <다시보기 온라인 예배>도 현장예배와 같은 예배이 다.’ 결과	96
<그림36> ‘11-1.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인식 변화가 생긴 분야는 무엇입니 까?(중복 선택 가능)’ 결과	97
<그림37> ‘11-2.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생긴 인식 변화는 내 개인 신앙에 있 어서 긍정적이다’ 결과	98
<그림38> ‘15.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화상(ZOOM, 구글미트 등) 온라인 소그룹 모 임]도 현장 모임과 같은 모임이다.’ 결과	100

<그림39> ‘16. 음성과 글로 소통하는 [그룹통화 및 채팅(카톡 등) 소그룹 모임]도 현장 모임과 같은 모임이다.’ 결과	101
<그림40> ‘17-1.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인식 변화가 생긴 분야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결과	102
<그림41> ‘17-2.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생긴 인식 변화는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결과	103
<그림42> ‘18.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소그룹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	104
<그림43> 팬데믹 이전 이후 심방횟수 변화와 비대면 심방 횟수	105
<그림44> ‘22-1. 비대면 심방이 대면 심방보다 더 유익한 점은 어떤 분야인가?(중복 선택 가능)’ 결과	106
<그림45> ‘23. 팬데믹이 끝나도 비대면 심방이 심방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	108
<그림46> ‘24. 정해진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결과	109
<그림47> ‘25. 다양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결과	110

감사의 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분야에 대한 박사논문을 한편 완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신학과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박사논문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이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한계를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유비쿼터스 교회 목회를 앞서 보여주신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학업을 지원하여 주시고 응원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깊이 있는 강의와 지도를 통해 이 과정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조병호 교수님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김영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막내아들의 학업을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목회와 공부의 시간 동안 언제나 내 옆에서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가장 친한 친구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상담가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게 해준 사랑하는 아내 신금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 같은 두 자녀 성현이, 성윤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 5

정찬일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목적

2020년 2월 Covid-19 팬데믹 사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는 아무런 신학적 논의와 준비 없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회문을 닫아야 했고, 많은 교회들이 갑자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온라인’이라는 세 글자를 붙이기 시작했다. 물론, 목회에 ‘온라인’을 붙이기를 거부하고 방역당국에 저항하거나 모든 목회를 중단한 채 다시 현장 목회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는 교회들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의 예상과 달리 팬데믹 사태는 1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갔고, 이제 3년 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 사이에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온라인 목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표준 없이 시작된 이 새로운 목회사역은 ‘온라인 교회’, ‘올(AII)라인 목회’, ‘비대면 목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새로운 목회 형태의 교회를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로 정의하고 그 신학적, 방법론적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다.

이 말은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IOT)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유비쿼터스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비쿼터스 개념은 팬데믹 사태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새로운 형태의 목회와 교회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개념이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교회를 정의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유비쿼터스 사회와 유비쿼터스 교회가 가지는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교회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교회는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떻게든(Anything) 예배하고 모임 할 수 있는 3A 교회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방법론과 전환 시 유의점들을 한소망교회의 실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특별히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했는지, 또 전환 시 주의점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 현재 온라인 목회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팬데믹 이후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교회를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코자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연구의 의의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했듯이 Covid-19 팬데믹 사태는 예기치 못했던

변화였고, 교회와 교계는 팬데믹 시기의 교회와 예배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떠밀리듯이 시작된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목회는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 채 이제 ‘일시적 목회 대안인가?’, ‘새로운 목회 대안인가?’, ‘Covid-19 팬데믹 이후 다시 이전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새로운 질문에 당면해 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사태 초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한소망 온라인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연구를 마치고 가면 늦는다. 온라인 교회는 가면서 연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 이후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지금까지 온라인 교회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제 팬데믹 이후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표준으로 ‘유비쿼터스 교회’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본 논문은 ‘가면서 연구하는 논문’이 될 것이다. 교회마다 전환한 목회 영역의 지경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온라인 목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목회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의구심은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과감한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미 온라인 교회와 목회를 하고 있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교회와 목회의 시작은 어떠한 논의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의 Covid-19 팬데믹 사태는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지금의 온라인 목회는 사라질 것인가? 모두가 동의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목회가 교회 내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려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단순히 ‘팬데믹 기간 중 잃어버린 믿음’으로 치부할 것인가? 어쩌면 갑작스러운 팬데믹의 시작보다 갑작스러운 팬데믹 종료는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제적 연구’가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사역을 유지하길 원하는 교회와 목회자, 또는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사역을 과감하게 확장하길 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신학적, 방법론적 이해를 제공할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를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유비쿼터스가 무엇이며,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볼 것이다. 유비쿼스 사회의 특징과 장단점은 유비쿼터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교회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유비쿼터스 교회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또 교회가 어떻게 변화 되어 왔고 유비쿼터스 교회로 발전되어 가는지,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 과정과 교회의 발전 과정을 비교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교회가 가진 장점과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단점과 위험성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되고 있는 실례로 한소망교회의 목회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소망교회는 2022년 현재 류영모 목사가 개척한지 31년이 된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로 2020년 Covid-19 팬데믹 이후 빠른 시간에 유비쿼터스 교회로 목회적 방법을 수용하였다. 특별히 한소망교회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5장에서는 지난 2년간의 한소망교회 온라인 사역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와 인식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유비쿼터스 교회의 의미를 확인해 보았다.

2~5장의 연구 내용을 6장에서 요약하며, 논문에 대해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보았다. 다음 연구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언을 제시하였다.

2장과 3장의 기본 연구에서는 문헌(논문, 서적)과 인터넷 자료,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고, 4장은 2021년 제작된 한소망교회의 올라인(All-Line) 목회 매뉴얼을 연구하였으며, 필자의 목회 현장에서의 직접 경험과 의견을 포함하였다. 5장의 설문조사는 구글 폼(Google Form)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5장에 사용된 설문 자료와 본문에 모두 담지 못한 기타 사역 매뉴얼들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제 I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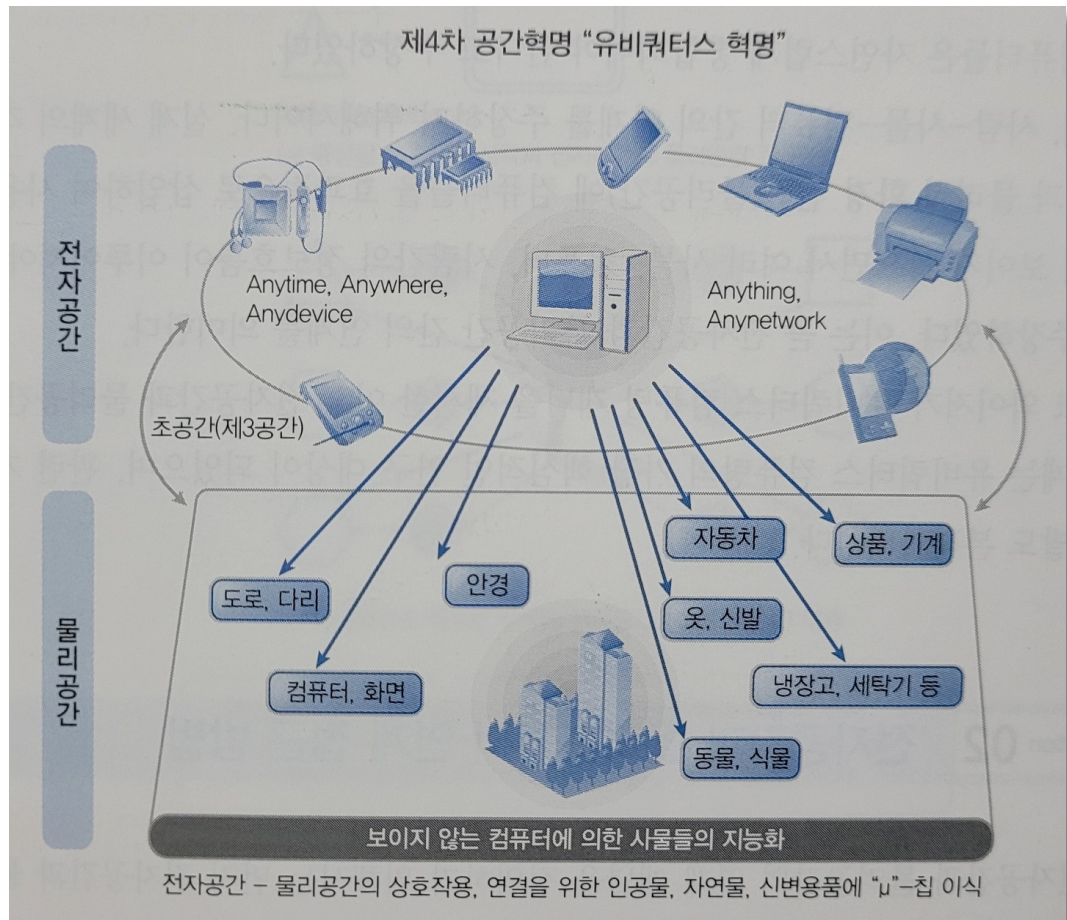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이해

유비쿼터스에 대한 정의

인류 문명사에 있어 중요한 네 가지 혁명을 상정해 본다면 아마 도시혁명,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유비쿼터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¹ 주지하다시피 도시혁명과 산업혁명은 물리적 공간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반면 최근 발생한 인터넷 혁명은 전자 공간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을 발생시켰고 인터넷 혁명 시대에 인류는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 사이를 교차하며 그 삶을 영위해 나갔다. 그러던 중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유비쿼터스 혁명은 도시혁명, 산업혁명이 이룩해 낸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 혁명이 창조해 낸 전자 공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공간, 즉 유비쿼터스 공간을 재창조해 냈다.

¹ 양순옥, 김성석, 정광식, *사물인터넷으로 발전하는 유비쿼터스 개론* (과주: 생능출판사, 2012), 20.

<그림 1> 제4차 공간 혁명 “유비쿼터스 혁명”²



위의 그림은 유비쿼터스 공간이 어떻게 전자 공간과 물리 공간을 융합하고 있는지를 적절히 표현해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유비쿼터스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는 이제 더 이상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을 교차하며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은 하나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² Ibid., 23.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라는 라틴어 ‘ubiquitas’에서 유래한 말이다.³ 유비쿼터스란 말은 신학적인 의미⁴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컴퓨팅과 관련된 단어이다. 미국 제록스사의 팔로 알포 연구소(PARC)의 연구원이었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을 주창하면서 이 개념이 사용되었다. 마크 와이저는 1988년에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후 몇 편의 논문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개념을 확립하였다.⁵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확장은 컴퓨터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던 기존의 인터넷 통신 형태를 급속히 발전, 변화시켰고, 급기야 사물에 수많은 작은 컴퓨터들(칩, 센서, 태그, 구동체 등)을 넣어 사물과 사람이 통신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작으로 사물, 공간, 시스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혁명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류는 이제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는 ‘유비쿼터스’ 의 말 뜻 그대로 어느 곳에서나 일하고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정보에 얻으며, 재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를 말해준다.

³ 안중호, 문재용,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해* (서울: 집문당, 2007), 27.

⁴ ubiquitous의 명사형인 ubiquity는 ‘무소부재’라는 신학적 용어인 Omnipresence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⁵ 김윤진, 권혁태, *유비쿼터스 개론* (서울: 문운당, 2006), 32.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징과 장단점

정보사회가 물리적 공간을 전자 공간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사회라면, 유비쿼터스 사회는 거꾸로 물리 공간으로 회귀하여 물리 공간에 정보기술을 집어넣어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려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⁶ 즉,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는 적대적,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양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의 기능 최적화에 기여함으로써 전체 사회는 발전하게 되고, 결국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이 함께 발전하게 된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사물은 자신의 주위 환경 정보를 수집, 반응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해 간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사물의 지능화를 통해 사물이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인간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인간은 시스템 및 자원 관리에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치 계산기가 일상화되면서 동네마다 있었던 주산학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일상화된 계산기 앞에서 뛰어난 암산 실력은 개인적인 장기자랑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더 이상 인간에게 전문성을

⁶ 조정환, “유비쿼터스 기술과 현대 사회구조 변화의 관계고찰,”(석사학위, 아주대학교, 2010),

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쉽게 전문성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단순히 컴퓨터 사용 능력이나 웹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편리한 사회, 즉 기존의 전문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유비쿼터스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라고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익혀야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 혁명과 유비쿼터스 혁명 사이에 머물러 있고, 완벽한 유비쿼터스 사회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석수는 그의 저서 『유비쿼터스 라이프와 미래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단면을 이렇게 표현한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떼려고 하면,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시켜 방문하거나, 웹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출력물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이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컴퓨터 사용 능력이 없어서 웹이라는 공간을 이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간 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든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 않고도 편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등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⁷

유비쿼터스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구별되며⁸, 오히려 자연 생태계에

⁷ 김석수, *유비쿼터스 라이프와 미래사회* (서울: 집문당, 2008), 27.

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오해하고 있다. 가상 현실이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이것은 유비쿼터스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유비쿼터스는 컴

가깝다.⁹ 가장 자연적인 것은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며,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경험의 보편화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유비쿼터스 혁명이 가져다줄 사회적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러나 비록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가 가져다줄 장점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비쿼터스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하자면 사물이 영리해지면 질수록 인간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야기된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인간은 그 대부분의 판단을 지능화된 사물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인간을 더 영리하게 만들어 주었던 기존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때문에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인간은 과연 얼마나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는 유비쿼터스 사회에 관련된 가장 큰 논의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 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키고 물리적 공간이 전자 공간을 변화시키는 순환적 고리 안에서 사회는 현상의 근원을 찾고 정의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절대적 진리의 부재, 가짜 뉴스의 범람, 갈등과 분열의 확장, 포스트모더니즘의 심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2021년 5월 4일 대한민국의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포털

퓨터가 현실 공간에 존재하고 정보도 현실 공간에서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이 아니다.” Ibid., 28.

⁹ Ibid., 24.

알고리즘 투명화 법' 을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되는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 를 설치,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과 기사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모이는 인터넷 포털에서부터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¹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영업 비밀로 가려져 있으니,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 자체의 진리 문제를 떠나 그 뉴스의 노출 빈도와 포털 내 배치의 문제까지도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 공간의 일상화는 정보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이는 전자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¹¹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이고 어떤 것이 전자 공간의 산물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짐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존 가치' 에 대한 큰 변화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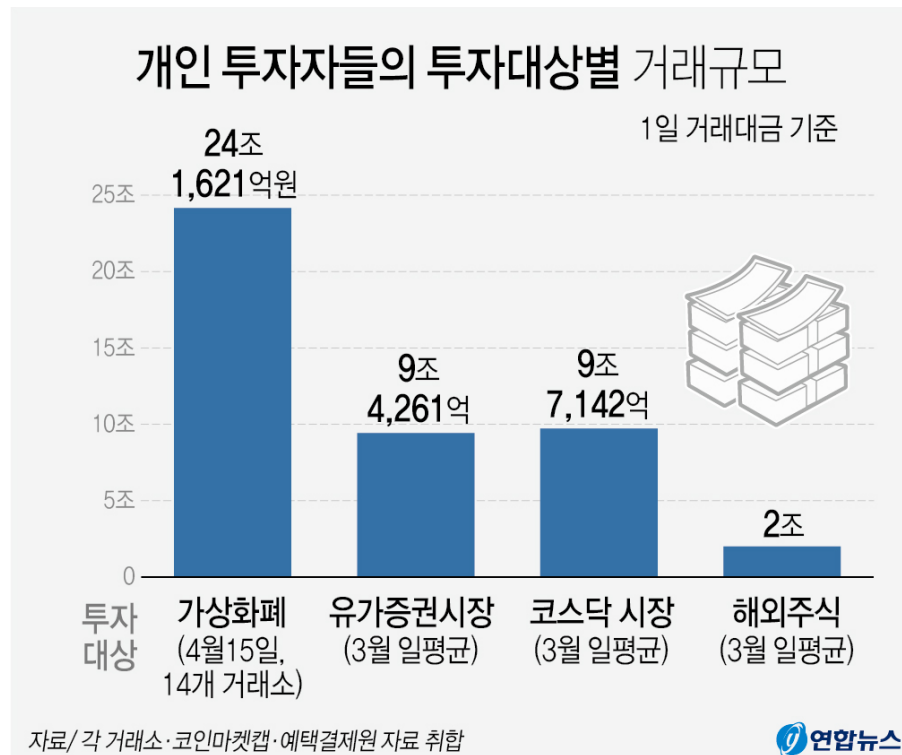
'비트코인' 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그

¹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73828?sid=100> (2021년 12월 29일 접속)

¹¹ 조정환, "유비쿼터스 기술과 현대 사회구조 변화의 관계고찰," (석사학위, 아주대학교, 2010), 28.

대표적이다. 연합뉴스는 2021년 4월 18일, 한국에서 가상화폐 1일 거래액이 1일 주식거래액보다 더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림2>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대상별 거래 규모¹²



기사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해외 주식 거래량의 1일 평균 거래액을 모두 합산해도 가상화폐 거래액보다 작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24조의 현금이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더 이상 ‘가상’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¹²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7058500002?input=1195m> (2021년 12월 29일 접속)

그러나 기사에서 보도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 는 기본 입장 아래 뒷짐을 지면서 가상화폐발 금융 시스템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¹³

하루에 24조의 현금이 거래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장할 수 없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하루에 24조의 현금으로 ‘그것’ 을 사고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직 명확한 정의와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사회가 지닌 위험성에 개인 정보의 유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유비쿼터스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의 저자인 리처드 헨터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비밀이 없는 세계’ 로 정의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사람과 기계가 하는 일은 거의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저장될 것이다. 아직까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수준은 완벽하지 않다. 이는 앞으로 10년 이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정말로 알고 싶어 한다면 결국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것이

¹³ Ibid.,

비밀 없는 세계의 기본적인 지식들이다. 우리는 이미 비밀 없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¹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유튜브를 이용하던 중에 자신이 최근 자주 검색했거나, 구매 또는 시청했던 정보들과 유사한 광고와 영상이 노출되는 것을 보며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자신은 모르게 자신의 모든 활동 정보들이 저장되고 누군가에 의해 분석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¹⁵ 이라고 한다.

아마존 사이트에서 책을 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목록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목록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추천하는 책들 중 한 권 정도는 자신이 이미 읽었거나 단순히 읽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아했던 책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고객에 대해 어떻게 그리 많이 알고 있을까? 결코 고객은 그들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아마존은 고객이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책을 선택하자마자 고객의 기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책값을 지불하기 전에 말이다.¹⁶

¹⁴ 리처드 헨터, *유비쿼터스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서울: 21세기 북스, 2003), 12.

¹⁵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어 광택을 찾아내듯이 정보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보 발견이란 데이터에 고급 통계 분석과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유용한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9774&cid=40942&categoryId=32841>(2021년 12월 29일 접속)

¹⁶ 리처드 헨터, *유비쿼터스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서울: 21세기 북스, 2003), 20-21.

데이터마이닝 기술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고도화 되고 있다. 리처드 헌터는 거리와 가정, 그리고 자동차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분명 편리한 서비스이긴 하나 우리는 나의 정보가 결합되어 더 커져 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편리함과 그에 따른 위험성 사이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¹⁷

우리는 정보를 소유하는 데 따르는 책임감과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전 지구적 합의를 보아야 한다. 교역의 목적이 전 지구적으로 제한이 없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시장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장을 떠나야 한다. 정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심각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¹⁸

칼은 무엇이든 쉽게 자를 수 있는 생활에 꼭 필요하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권 손이 누구의 손인지와 그 자르는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진 도구가 되기도 한다. 유비쿼터스는 어찌면 인류의 손에 새롭게 쥐어진 새로운 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카로움을 가졌다. 그러하기에 칼을 쥐 사람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회는 더 두껍고 단단하고 세밀한 안전망 구축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¹⁷ 김석수, *유비쿼터스 라이프와 미래사회* (서울: 집문당, 2008), 147.

¹⁸ 리처드 헌터, *유비쿼터스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서울: 21세기 북스, 2003), 350.

제 III 장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에 대한 신학적 근거

유비쿼터스 기술의 기초를 보통 3A라고 한다. 여기서 3A는 Anytime, Anywhere, Anything이다.¹⁹ 유비쿼터스는 말 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3A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하나님은 언제나(Anytime) 계신 분이며, 어디에나(Anywhere) 계신 분이며, 불가능이 없으신(Anything) 분이다. 말 그대로 전지전능(全知全能, the Almighty)이다. 어쩌면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교회의 정의도 동일하게 3A(Anytime, Anywhere, Anything)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교회에 대한 신학적 근거 역시 ‘하나님의 3A’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Anytime)’는 신앙고백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며,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시편 90편 2절은 언제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 하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¹⁹ 조정환, “유비쿼터스 기술과 현대 사회구조 변화의 관계 고찰,” (석사학위, 아주대학교, 2010), 10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²⁰ 또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²¹

요한계시록에는 위의 본문 외에도 두 번이나 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라는 표현으로 언제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²²,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그의 저서 *Systematic Theology*에서 하나님의 영원성(Etern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모든 순간의 시작이나 끝, 연속이라는 개념이 없고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시지만 시간의 사건을 놓치지 놓치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역사하신다²³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대해 시작, 끝, 연속이라는 개념이 없이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사건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²⁰ 시편 90:2

²¹ 계 1:8

²²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²³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168.

깨어 우리를 지키신다는 시편 121편 4절²⁴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Anytime) 계시며, 언제나(Anytime) 일하신다면 교회도 언제나(Anytime)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Anywhere) 계신 분이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편재(遍在, Omnipresence)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²⁵

다윗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시며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한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든, 스올에 있을 때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하늘과 같은 곳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하며, 스올과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거기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어디에나(Anywhere) 있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함이 옳바르다. 버크호프(Louis Berkhof)는 그의 저서 *Systematic Theology*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적인 제한들을

²⁴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²⁵ 시 139:7~10

초월하시면서도 그의 실유 전체로 공간의 각 부분에 임재하시는 신적 실유의 완전성²⁶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시며, 공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²⁷ 공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실 수가 없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서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크기와 공간적인 면적을 가지고 완전하게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다르게 행동하신다.”²⁸

앞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정의를 다루면서 언급했듯이 Ubiquitous는 단어의 명사형인 Ubiquity가 하나님의 편재를 의미하는 종교적인 용어 Omnipresence와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것²⁹은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교회가 아니며, 근원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Anything) 가능하신 분이다. 성경은 전능(全能, omnipotence)이라는 단어를 총 69번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 역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이다.³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²⁶ Louis Berkhof, *벌굽조직신학(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278.

²⁷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173-174.

²⁸ Ibid., 173.

²⁹ 네이버 사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e7078f6ba7ab41efaf178ea89c14bbef>(2021년 12월 29일 접속)

³⁰ 새번역 사도신경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 설명하셨고³¹,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설명하셨다.³²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이든(Anything) 가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쉽게 나타내 준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³³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정의는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겐 단순한 선언 이상의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게 할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가 전지전능하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순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³⁴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것(nonsense)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불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스스로를 모순되게

³¹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³²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³³ 마 19:26

³⁴ C. S. Lewis,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Macmillan, 1955), 16

하는 일들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것들(things)이 아니라 헌것들(nonentities)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일을 수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다.³⁵

하나님을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도 한계가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는 한계가 없는 교회라는 믿음의 실상이 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³⁶, 디지털 트윈(Digital Twin)³⁷, 가상현실(Metaverse)³⁸ 등

³⁵ Ibid.,

³⁶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 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에어컨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물인터넷이란? (국립중앙과학관 - 사물인터넷)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6810&categoryId=58369&cid=58369>(2021년 12월 29일 접속)

³⁷ “IOT에 연결된 사물들을 통제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개념, IOT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감지기가 수집하는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된 분석 도구, 실물의 움직임 등을 와이어 프레임(물체의 뼈대를 철사 구조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컴퓨터 도형)으로 복제하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대단히 복합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쌍둥이는 ‘모양, 위치, 동작 상태를 포함해 물체의 최신 특성과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쌍둥이를 이용하면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실물의 실시간 작동 상황과 오작동의 원인을 모두 분석할 수 있다.”

W.데이비드 스티븐슨, 초연결, 김정아 역, (파주, 드림북스, 2019), 103~105

³⁸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

유비쿼터스를 둘러싼 환경과 기술의 발달은 유비쿼터스 교회를 한계가 없는, 무엇이든 가능한 교회로 이끌어 간다.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명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한편을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³⁹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교회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곳이라고 지금까지 여겨오지 않았던가.

유비쿼터스 교회의 발전 과정

필자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9년 당시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오륜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거대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입구에 들어섰는데, 가장 먼저 우리 일행을 맞이한 것은 은행의 현금 자동인출 기계(ATM⁴⁰)였다. 이것은 예배 전에 현금을

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로부터 온 것이다.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인다. 가상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아바타로서)과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은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버스 [Metaverse] (손에 잡히는 방송통신융합 시사용어, 2008.12.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6975&cid=59277&categoryId=59279> (2021년 12월 29일 접속)

³⁹ 막 9:23

⁴⁰ Automated Teller Machine

인출하거나 계좌 입금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교회 건물 안에 은행 ATM 기계가 있다니, 용도의 적절성을 떠나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획기적으로 느껴졌다. 필자는 1년 후 신대원을 졸업하고 당시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인 영락교회에서 전임 교역자로 사역하였는데, 그 당시 영락교회는 1만 명이 넘는 성도가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현금 바구니를 예배 중에 돌렸고, 현금 바구니에서 무수히 많은 현금을 꺼내 쌓아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계수 테이블과 수십명의 계수 위원들이 철통보안 속에서 마음껏 계수 할 수 있는 전용 계수실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불편하고 수고스럽지만, 예배시간에 현금으로 준비한 현금을 직접 드리고, 봉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일일이 계수하는 전통적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주일이 지나면 행정실 회계직원이 테이블 위에 빈 현금봉투를 높이 쌓아놓고 며칠간이나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풍경은 수고롭지만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오륜교회에서 보았던 교회 내 은행 ATM 기계는 수고와 헌신이 가득한 영락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필자에게는 세속적인 것으로 남게 되었다. 필자가 현재 사역하는 한소망교회 역시 1만 명의 예배 인원을 가진 대형교회이다. 영락교회처럼 예배시간에 현금 바구니를 돌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금을 준비하여 예배시간에 현금을 드린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주보에는 인터넷 현금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본 논문의 4장 유비쿼터스 예배 방법론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왜 예배 중에 현금 바구니를 사용하면서 왜 인터넷 현금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것일까? 이에 대해

심각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중 Covid-19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고, 한소망교회는 중단된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이미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인터넷 헌금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는 매우 선견지명이 있던 목회적 방법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한소망교회에서는 팬데믹 초기에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목회자가 골머리를 썩지도, 성도들이 당황하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 입금하기 위한 은행 ATM 기계에도 세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필자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소망교회의 온라인 헌금 시스템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소망교회의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자를 변화시킨 것일까? 아니면, 교회를 변화시킨 것일까? 사실 둘 다이다. 시간은 교회도 변화시켰고, 목회자들도 변화시켰다. 교회가 변해서 목회자가 변화되었는지, 목회자가 변화되어 교회가 변화되었는지의 닭과 달걀의 우선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회도 목회자도 이미 유비쿼터스 혁명의 물결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사회와 교회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안중호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해』에서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 발전의

단계를 전산화 단계, 온라인 단계, 통합화 단계, 유비쿼터스 단계의 총 4가지로 보았다.⁴¹ 전산화 단계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이며, 온라인화 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단계이다. 통합화 단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확산시키는 단계이다. 마지막 유비쿼터스 단계는 이미 전장에서 고찰한 대로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어 자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표1> 정보기술과 사회의 발전단계⁴²

전산화 단계	온라인화 단계	통합화 단계	유비쿼터스화 단계
1980~1990년대	1990~2000년대	2000~2010년대	2010년대
DB구축	인터넷 확산	채널, 서비스 통합	인간, 사물, 컴퓨터 융합
DB중심	컴퓨터 중심	사람 중심	사물 대 사물의 통신
개별적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Seamless Service	자율적 서비스
정보축적	정보확산	정보공유 / 지식확산	사물 지능화
자동화	네트워크화	융합화	내재화

유비쿼터스 교회의 발전 과정 또한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목회의 전산화,

⁴¹ 안중호, 문재웅,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해* (서울: 집문당, 2007), 24.

⁴² Ibid.,

목회의 온라인화, 목회의 통합화, 목회의 유비쿼터스 화가 바로 그것이다. 목회의 전산화는 목회의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단계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교를 기록하고, 설교 영상을 데이터로 만들어 저장하는 단계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 설교를 모두 손으로 기록하고, 교회에는 설교 녹화 시스템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목양을 위한 성도들의 다양한 정보들은 등록카드, 심방카드, 기도카드 등 카드 시리즈로 해결되어 보관되고 활용되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설교를 손으로 기록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고, 설교 녹화를 하지 않는 교회도 거의 없다. 성도들에 관한 정보 및 심방기록, 기도제목들도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다. 목회의 전산화는 이미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목회의 온라인화이다. 1980~90년대에는 목사의 설교를 테이프에 녹음에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교회가 많았다. 그 후 필자가 대학생이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설교를 CD에 저장하여 성도들께 제공하거나 전도용으로 배포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교회도 설교를 테이프나 CD에 저장하여 다시 듣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가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교와 주보,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등 목회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목회의 온라인화 단계 또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이미 완료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목회의 통합화 단계이다. 앞선 전산화 단계가 목회 데이터

축적에 중점을 두었다면 온라인화는 목회 데이터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통합화 단계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맞는 목회 데이터를 찾아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교회 홈페이지들은 설교와 주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주로 이루어었다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는 성도들과의 소통의 창구로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다. 교회 중심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접속하는 성도들 중심으로, 또 단순 방문자들을 위한 배려를 홈페이지 운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개교회 중심적인 한국교회의 특성 안에서 목회 데이터의 통합화가 각 교회 데이터의 영역 안에서 밖에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자 한계이다. 모든 영역의 정보 데이터와 채널을 융합하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의 통합화 단계를 생각하면⁴³, 교회의 통합화 과정은 아직 갓난아이 걸음마 수준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종교가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교단 안에서의 폐쇄성과 이단 논쟁, 비평과 평가에 대한 정당성 논쟁 등을 생각할 때 목회 데이터의 통합화 과정이 가진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유비쿼터스 교회로 발전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당연히 유비쿼터스화 단계이다. 유비쿼터스화 단계는 말 그대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⁴³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배달의 민족, 타다, 요기요 등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우리 생활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접목해 소비자 편의성을 더욱 높이면서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약 555개 O2O 서비스 기업의 2019년 매출액은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0.4% 성장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국내 O2O 서비스 시장 2.9조원 규모로 확대,” (2020.4)

교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교회의 온라인화, 그리고 정보의 통합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목회 과정을 교회 밖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참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스마트폰 보급률과 무선인터넷 보급률 모두 세계 최상위권인 IT강국 한국 사회에서 교회 역시 유비쿼터스 교회를 구축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교회의 출현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유는 ‘동기의 부재’와 ‘신학적 근거의 연약함’ 때문이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구별된’ 것을 강조하고, 선호한다. 예배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고, 헌금도 구별된 것이어야 했다. 구별된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Anytime, Anywhere, Anything이라는 유비쿼터스의 3A는 기존의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별되지 않은 것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교회도 ‘구별됨’ 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유비쿼터스 교회의 출현은 한국 사회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사회는 통합화 단계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통합화의 단계에서 멈춰서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Covid-19 팬데믹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덮쳤고, 멈추진 한국 교회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 헌금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야 했으며, 어떻게든 헌금해야 했다. Anytime, Anywhere, Anything에 한국 교회는 거룩함을 부여해야만 했고, 인터넷 교회,

온라인 교회, 유튜브 교회 등 많은 이름으로 유비쿼터스 교회가 급진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에서 ‘구별된’은 이제 적어도 ‘정해진’은 아니다.

유비쿼터스 교회의 장점 및 가능성

유비쿼터스 교회의 장점은 한계를 벗어난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를 정의하는 3A(Anytime, Anywhere, Anything)에 Anybody를 더한 4A가 바로 유비쿼터스 교회가 가진 장점이며 무한 가능성을 잘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소망교회의 5051 소그룹에 소속된 한 성도는 지난 2년간 대만에 장기 해외출장 중이었다. 출장은 Covid-19 바이러스 출현 이전 시작되었고 중간에 팬데믹 상황을 맞았다. 5051 소그룹은 매주 1회 소그룹 모임을 진행했는데, 해외출장 성도는 당연히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고 해외출장 중이던 성도는 귀국 시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회적 가능성은 비단 소그룹에서만 아니라 심방, 전도,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한소망교회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살고 있는 교포 또는 유학생들이 교인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목회자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들을 목양하고 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유비쿼터스 교회의 가능성을 선교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관점에서 온라인 교회는 접근이 용이하고 문턱이 낮아 가나안 성도들이나 비신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질병, 출산 등의 사정으로 현장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이 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온라인 예배는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가정으로 옮겨 주어 교회의 오랜 과제였던 가족 예배, 가족 기도회, 가족 간 대화, 가족의 구역화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에 방점을 두어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죠.⁴⁴

교회에 출석해야만 가능했던 예배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새벽기도회가 그 좋은 예이다. 새벽기도회는 한국 교회 안에서 영성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 오직 기도를 위해 피곤한 몸을 깨워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모본이었다.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새벽기도회가 추구하는 신앙 영성이었다면 팬데믹 이후 교회의 새벽기도회는 내 삶 속에서 그 시간을 구별하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숫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전체 성도의 숫자는 놀랍도록 상승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한소망교회는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이미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고 다시보기 영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예배에 ‘어디서나(Anywhere)’ 라는 유비쿼터스적 개념을 허용했을 뿐이다. 김순환은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워진 정시기도 전통을 초연결 미디어를 통해 항시적 기도회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⁴⁴ 류영모, *COVID19 재난시대의 교회*, (파주: 한소망교회, 2021), 14-15.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워진 정시기도 전통을 초연결 미디어를 통해 새벽기도 등에 채용함으로써 오히려 항시적 기도의 현대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의 실시간 동영상 혹은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벽시간은 물론 기타 하루 중 각 회중들의 예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두 세번의 탄력적 예배 운영을 고려해 볼만하다.⁴⁵

‘어디서나(Anywhere)’ 로 시작된 예배의 확장은 결국 ‘영상 예배’ 의 개념이 일반화와 함께 ‘언제나(Anytime)’ 의 영역에까지 도달할 것이다.⁴⁶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인식 변화 즉,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 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만 할 것 같다. 2020년 2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고 한국 교회에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에 나 올 수 없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다. 팬데믹 초기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주일에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 62%가 집, 사무실 등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⁴⁷ 대체 예배를 드린 교인들 가운데서 기존 출석하던 교회의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린 비율은 57%였다.

⁴⁵ 김순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교회 예배 대안 모색: 삶 속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예배 지평 확장.”, *신학과 실천*77(2021), 52-53.

⁴⁶ ‘영상예배’ 또는 ‘온라인예배’라는 용어가 일상화되면서 초기에 존재했던 ‘실시간’과 ‘다시보기’라는 영상에 대한 구분은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⁴⁷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VOL2*(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12.

<그림3> 대체 예배드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⁴⁸



그런데 팬데믹 초기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대부분 본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 예배 초기 예배 참석자들의 무려 82%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히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고 대답한 설문조사 결과⁴⁹가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이후 발생한다. Covid-19 팬데믹 초기인 4월에 '팬데믹 종식 후에도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 고 답한 사람이 13%였는데, 3개월이 지난 7월 조사에서는 17%로 그 수치가 상승한 것이다.

⁴⁸ Ibid., 13.

⁴⁹ Ibid., 20.

<그림4> Covid-19 종식 후 예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⁵⁰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 안 가겠다' 2%(4월) → 6%(7월)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종식 후 본인의 예배 형태 예상을 질문하였는데,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서 출석하여 예배 드릴 것 같다'가 76%로 '4월' 조사 85%보다 9%포인트 줄어들었고, 반면 '필요한 경우 온라인/방송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4월' 13%에서 '7월' 17%로 증가하였음

이유가 무엇일까?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신앙이 약해진 것일까?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의 현장(대면) 예배와 비교하면 온라인 예배가 어떤지 물었는데,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대답이 4월 9%에서 7월에는 15%로 상승한 것이다.

⁵⁰ Ibid., 27.

<그림5> 온라인/방송 예배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⁵¹

● 온라인/방송 예배 선호도 증가 추세

- 온라인/방송 예배 드린 자에게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와 비교하면 어떤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월등하게 높은 가운데,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응답이 ‘4월’ 9%에서 ‘7월’ 15%로 꽤 상승한 점이 주목됨

[그림] 온라인/방송/가정 예배와 대면 예배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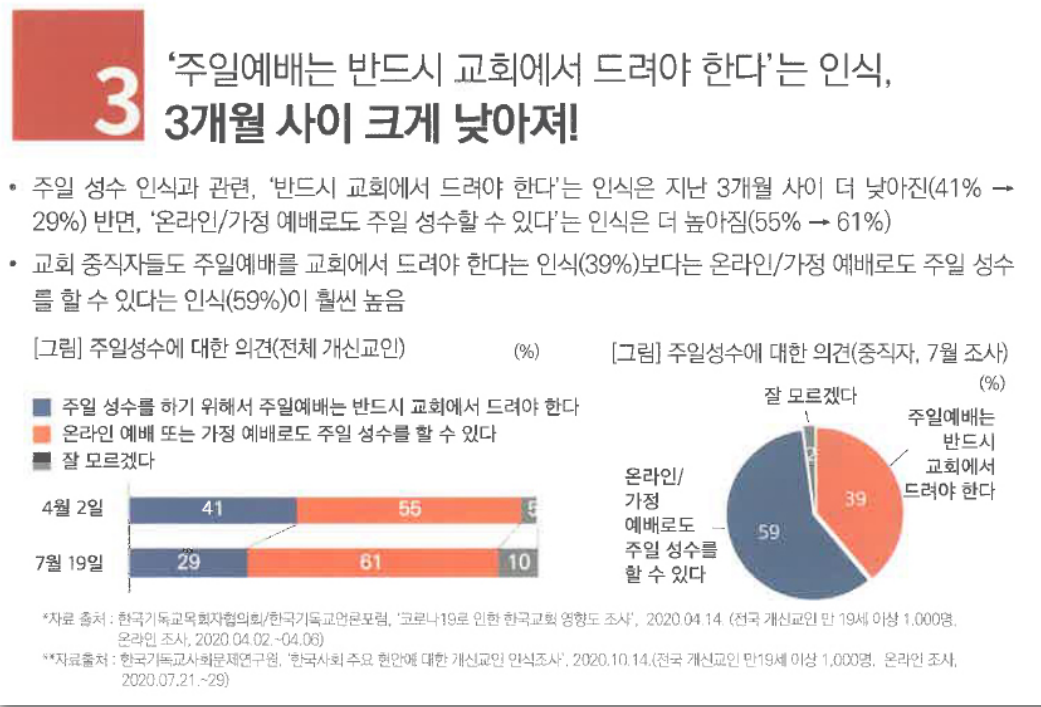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교회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대답은 41%에서 29%로 감소했고, 반면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대답은 55%에서 61%로 상승했다.

⁵¹ Ibid., 28.

<그림6> 주일성수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 조사⁵²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난 지금은 아마도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도들은 이미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 예배의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구별하고 있다. 거리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목양과 교제를 시작했고 ‘시간 될 때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와봐’ 라는 전통적 전도 방식은 ‘시간 될 때 이

⁵² Ibid., 29.

영상을 꼭 한번 봐봐’ 라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중증을 앓고 있는 남편의 병간호로 인해 교회에 자유롭게 올 수 없던 한 여성도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신앙양육, 온라인 소그룹이 시작된 이후 ‘더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라는 고백은 유비쿼터스 교회가 가져다줄 무한 가능성의 긍정적인 한 단면이다.

유비쿼터스 교회의 단점 및 위험성

유비쿼터스 교회의 단점이자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위험성은 세대에 따른 정보의 단절이다. 유비쿼터스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뜻한다. 그렇기에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된 이후에는 세대에 따른 정보의 단절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되는 과정 중이라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세대가 간에 가치관 차이가 가장 큰 사회 중 하나이다.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은 초고령의 세대, 전쟁 후 빈곤을 겪은 고령의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온 중년의 세대, 그리고 선진국의 문을 연 X세대와 디지털 유목민인 MZ 세대까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 저마다의 이야기와 시대를 살아왔다. 단순히 경험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적응의 가치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비쿼터스 교회로의 전환은 신앙적 가치관의 충돌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적 가치관의 충돌로도 나타날 것이다.

돈 탭스콧은 1977년~97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그들의 자녀들인 N세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탭스콧은 베이비 부머 세대와 N세대의 차이를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와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이민(移民) 사회를 보면 1세대와 2세대가 현지 언어 습득 능력의 차이에서 뚜렷한 경계선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라는 신대륙에 뒤늦게 발을 디딘 이민 1세대, 즉 베이비 부머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신대륙을 무대로 자란 N세대 사이에서 경계선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것이다.⁵³

김명찬은 세대를 기성세대(Old Generation)와 사이세대, 신세대(New/Net Generation)로 구분하면서 기성세대는 신문과, 라디오 흑백TV라는 매체에 익숙한 세대, 사이세대는 칼라 TV에 익숙한 세대, 신세대는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사이버 스페이스에 익숙한 세대로 구분했다.⁵⁴ 그러나 시대는 10년 만에 전혀 다른 세대 구분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신문과 라디오, 흑백 TV 세대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컬러 TV 세대가 기성세대, 컴퓨터세대가 사이세대, 그리고 모바일 세대가 신세대가 되어있다.

단순히 익숙한 매체의 차이를 넘어서 익숙한 교회와 예배도 세대별로 큰

⁵³ 우병현 기자, “Cover Story 디지털 구루 돈 탭스콧,” 조선일보, 2009.8-2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8/2009082801260.html(2021년 12월 29일 접속)

⁵⁴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 (2010), 345.

차이를 보여준다. M. Rex, Miller는 그의 저서 *밀레니엄 매트릭스*에서 시대와 교회를 구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전 중심의 교회(BC~AC1500), 인쇄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남 중심의 종교개혁교회(1500~1950), 방송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벤트 중심의 축제교회(1950~2010), 디지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컨버전스 교회(2010~)로 구분했다.⁵⁵ 예전 중심의 교회에서는 성찬식 등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의식을 재현하는 형식이 중요했고, 종교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중요했다. 축제교회는 찬양과 대형 이벤트가 중심이었으며, 컨버전스 교회는 친밀하고 다 감각적이며, 즉흥적, 몰입적, 신비적 깊이가 있고 서로 교류하는 체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는 예배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⁵⁶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각 세대가 가지는 익숙한 매체의 특징, 익숙한 교회의 모습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요소들을 다각도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서로 분열되고 교회는 신학적 혼란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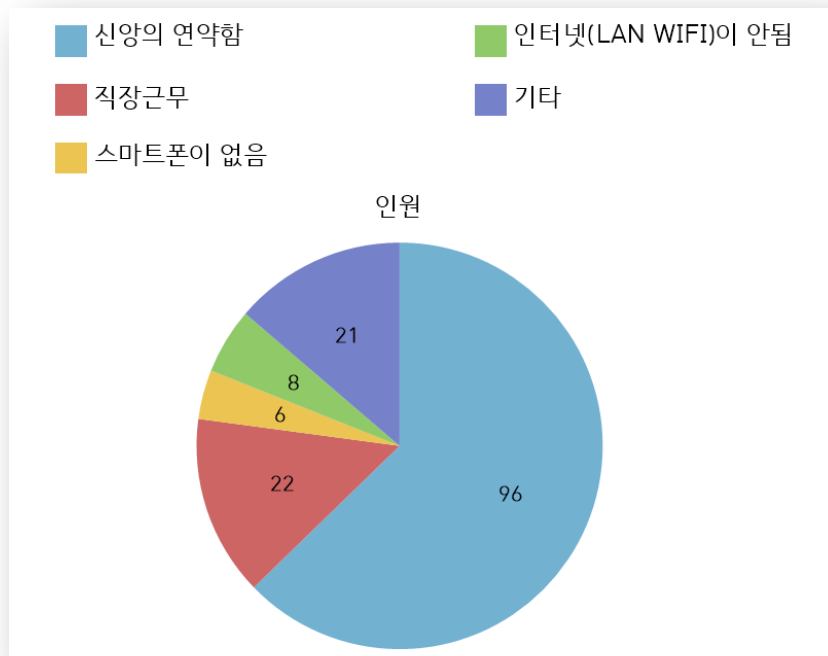
다행인 것은 한소망교회가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이 지난 2021년 1월에 한소망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총 153가정이 온라인 예배를 전혀

⁵⁵ M. Rex, Miller, *밀레니엄 매트릭스*, 김재영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⁵⁶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 (2010), 350.

드리지 않고 있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7> 온라인 예배 불참 사유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LAN, WIFI)이 안 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는 14가정으로 전체의 9.1%밖에 되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 불참의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예배를 충분히 참석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전체의 62.7%인 96가정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예배가 생겨났을 때에 사용 매체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교회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요소의 차이가 참여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쨌든 한소망교회의 전체 참여 성도를 생각할 때, 새로운 예배 시스템으로 인해 교회로부터의 단절을 겪는 성도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목회자의 적극적인 돌봄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비쿼터스 교회의 또 다른 단점이자 두 번째 위험성은 교회의 대형화와 획일화의 심화이다. 한국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오륜교회는 매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집회를 연다. 오륜교회 현장에서 열리는 집회를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동시 참여하는 형태이다.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했으나 결과는 놀라웠다.

터닝포인트가 됐던 건 지난 2013년. 오륜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이것이 개교회를 넘어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했다. 그해 이 기도회에 참여한 교회의 숫자는 38개에 불과했다. '겨자씨' 같은 수였다. 하지만 이듬해 참여 교회 숫자는 264개로 1년 만에 약 6배가 늘었다. 그리고 2015년 1,076개, 2016년 3,202개, 2017년 10,091개까지 폭발적 성장을 거듭한다. 해마다 거의 3배씩 늘었다. 5년 만에 한국교회 약 20%가 참여하는 기도회가 된 것이다. 지난해엔 11,212개였고, 올해는 10월 16일 현재까지 12,030개 교회가 참여 신청을 했다.⁵⁷

2019년 12,030개였던 참여 교회는 작년 2021년에 14,740개 교회로 더욱

⁵⁷ 김진영 기자, “다니엘처럼, 한국교회 20%가 참여하는 기도회,” *크리스천투데이* (2019년10월16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6088>, (2021년 1월 26일 접속)

늘었다. 2013년에 38개 교회가 참여했던 이 온라인 집회는 2년 만에 1,000개 교회를 넘어서더니 4년 만에 10,000개 교회를 넘어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21일의 긴 집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바뀌는 수준 높은 찬양팀과 작은 교회에서는 초빙하기 어려운 다양한 강사들의 간증과 설교는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결코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다. 작은 교회의 교인들은 21일간 이러한 대형교회의 시스템과 예배에 더욱 익숙해지게 되며, 그러는 사이 한국교회의 대형화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⁵⁸ 대형화와 함께 획일화의 문제도 심각하다. 예전에 가을이면 지역과 마을마다 곳곳에서 개최되었던 교회의 사경회나 부흥회의 모습은 어느덧 점점 사라지고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 현수막이 붙는 풍경은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 가져올 위험성의 한 단면을 암시하는 것만 같다.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가까운 집 근처 교회에 출석해야 할 이유에서 성도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으며, 먼 지역에 소재한 대형교회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온라인 교인들을 양산할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한소망교회도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여 온라인 교인 등록 시스템 구축 시 다른 교회 교인들의 등록을 금지하고, 해외 거주 또는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론으로 교계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대형교회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교회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철학과 의지가 필수적이다.

⁵⁸ 물론, 한국교회의 대형화 문제를 다니엘기도회의 성장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교회가 대형교회들에게만 더 큰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물과 인테리어, 편의시설, 고가의 음향 시스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예배는 작은 교회들에게 기회가 된다. 실제로 현장예배 장소가 따로 없는 100% 온라인 교회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다양한 교회 형태가 활발하게 실험되고 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큰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신학적으로 더 보완하고, 작은 교회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결코 큰 교회의 또 다른 물량주의나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적 교회의 틀 안에서 온라인 교회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⁵⁹라고 이야기하였다.

유비쿼터스 교회가 안고 있는 세 번째 위험성이자 해결과제는 ‘편리주의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편리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본 논문의 IV장의 두 번째 섹션에서 유비쿼터스의 3A(Anytime, Anywhere, Anything)가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한 신앙의 결연한 결단임을 논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유비쿼터스의 3A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중심의 삶을 위한 3A가 아니라, 더 쉽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3A가 될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개인의 영성 수준으로 치부하기에는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사무엘하 6장의 ‘베레스웃사’ 사건에서 우리는 신앙의 편리주의가 가져올

⁵⁹ 류영모, *COVID19 재난시대의 교회* (파주: 한소망교회, 2021), 15.

위험성에 대해 발견할 수 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정치, 군사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과업으로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유다 곧 기랴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는 것이었다.⁶⁰ 언약궤 운반의 실무자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선택한 방법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언약궤의 운반은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어깨로 메고 옮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이다.⁶¹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고,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가 손으로 여호와의 궤를 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⁶² 물론,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은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보다는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이 더 결정적일 것이다.⁶³ 결국 언약궤

⁶⁰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하 제 1-10장* (서울: 제자원, 2012), 407.

⁶¹ 출애굽기 25:15, 민수기 3:30~31; 4:15; 7:9,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6장 7절에 의하면 어깨로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이방의 방법이었다. Ibid., 422.

⁶² 사무엘하 6:6~7

⁶³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4:15

운반 작전은 중단되었고, 석 달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수레에 신지 않고 율법에 따라 사람이 어깨에 켈을 멘 뒤에야 운반이 가능했다.⁶⁴ “여호와와 켈을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⁶⁵ 여호와와 켈을 이동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항상 합리적인 방법인 것은 아니다.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실어 소가 끌게 하는 것은 훨씬 쉬웠고 더 안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

A.A. 앤더슨은 언약궤 운반에 있어서 수레는 확실히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러한 편리성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레(병거가 아니라)는 단순히 운송의 수단이었다 새 수레는 정결하고 효과적이었다(참조. 삿 16:7, 11: 삼상 6:7). 따라서 새 수레는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데 적절한 기구였다. 그러나 수레에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민수기 7:9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⁶⁶

유비쿼터스 시대에 유비쿼터스 예배와 모임은 모든 면에서 분명 더

⁶⁴ 이때 다윗은 일차 언약궤 운반 시도 때와는 달리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약궤 운반 방법을 충실히 준행하여 언약궤를 운반하였으며 마침내 다윗성에 안치할 수 있었다(12-19절) 다윗은 아마도 3개월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얻어 그의 일차 언약궤 운반 시도의 실패 원인이 그 운반 방법에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다. 제자원, *우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하 제 1-10장*, 408.

⁶⁵ 사무엘하 6:13

⁶⁶ A. A. 앤더슨, *WBC 성경주석: 사무엘하*, 권대영 역(서울:솔로몬, 2001), 198-199.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선택이 편리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언약궤를 유비쿼터스 수레에 싣고 편하게 가는 것이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유비쿼터스가 ‘수레’가 아니라 ‘어깨’가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신학적 논의와 방법적인 연구, 무엇보다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교회의 마지막 단점이자 위험성은 ‘익명성’이다. 박일민은 ‘사이버 시대의 사이버 교회’라는 글에서 사이버 교회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익명성을 뽑았다.

사이버 교회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된다.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하거나 부담되게 여겨지는 일을 맡지 않아도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혼자 숨어 있을 수 있다. 만일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이버 교회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화에 길들여진 현대의 교인들에게 신선한 대안처럼 여겨질 수 있다.⁶⁷

그러나, 박일민은 익명성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과 동시에 문제점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였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적 교통의 한계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교통이다. 이 두 요소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격적인

⁶⁷ 박일민, “사이버시대의 사이버교회,” *교회와 신앙* (2001년 12월)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2021년 12월 29일 접속)

만남이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생겨나거나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교회에서는 다량의 정보 교환이나 빈번한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을 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격적인 만남은 화면이나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직접적인 눈빛으로 통하고, 말 없는 미소나 느낌, 또는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는 손길 속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진하게 통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또 진정한 인격적인 교통은 인격적인 존재가 피차간에 나누는 교통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이버 교회에서는 쌍방적인 교통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만 있어지기가 쉽다는 한계도 있다.⁶⁸

물론, 박일민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가상공간 속의 사이버교회’와 ‘현실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교회’는 그 개념부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회는 박일민의 지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유비쿼터스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예배만큼이나 유비쿼터스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다. 소그룹 모임은 신앙 성장 프로그램이나 봉사와 헌신 사역으로의 연결에도 영향을 준다. 물론 지금도 예배에만 참여하고 그 어떠한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 않는 성도들은 많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적 추세이다. 유비쿼터스 교회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가지는 익명성의 문제는 현장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동시에 언제나,

⁶⁸ Ibid.,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함께 논의하는 주제가 유비쿼터스 ‘신앙’ 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교회’ 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없이 예수님만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교회가 모일 때, 삶의 다른 무대에는 존재하는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해진다. 교회없이 예수님만 가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신다.⁶⁹

유비쿼터스 교회가 ‘교회’의 모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동시 접속자 숫자 속에 숨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위험성이 크기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동시 접속자의 숫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찾아 교회의 유비쿼터스 소그룹 모임으로 인도할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⁷⁰

⁶⁹ 레너드 스윗, *관계의 형성*, 윤종석 역(서울: IVP, 2007), 149.

⁷⁰ 한소망교회는 유비쿼터스 교회로 나아가며 익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 모든 소그룹 정보를 홈페이지 및 앱에 공개하고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매년 초에 나에게 맞는 소그룹을 검색하여 참여 신청하는 캠페인을 가진다. 관련 자료를 본 논문의 부록에 실었다.

제 IV 장

유비쿼터스 교회의 목회 방법론(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소망교회의 교회론과 유비쿼터스

한소망교회는 류영모 목사⁷¹에 의해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⁷²에서 1991년에 설립된 교회이다. 한소망교회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라는 교회론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주님이 세우시길 원했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그 교회의 원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교회론이다. 류영모 목사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를 다시 여섯 가지 교회론으로 정의했는데⁷³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예배와 소그룹이다.

첫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다.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이다. 둘째,

⁷¹ 류영모 목사는 CBS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과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 중이다.

⁷²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함께 세 번의 성전 건축을 하였고, 지금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⁷³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인적 소그룹 즉 목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신령한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 교육과 성도를 양육하는 시스템이 잘 준비된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의 여섯 가지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델로 정의하였다. 한소망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한소망교회 30년 이야기*, (파주:한소망교회, 2021)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전인적 소그룹 즉 목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다. 초대교회는 가정에 있는 작은 소그룹 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었다. 이 시대 교회들의 과제가 있다면 교회 내 소그룹들(구역장, 각 사역팀들, 남선교회, 여전도회)을 살아 움직이는 셀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⁷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은 예배와 소그룹이다. 한소망교회는 스스로를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 지칭한다. 소위 ‘두 날개 교회’는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로 부흥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소그룹 사역을 셀의 형태로 진행하기에 두 날개 교회를 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류영모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예배의 날개가 힘 있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이 힘차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죽었던 소그룹의 날개가 힘 있게 창공을 향하여 치솟아 오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⁷⁵

1996년 11월 10일 남성 구역모임인 사랑방 모임을 시작으로 시작된 한소망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현재 497개의 소그룹으로 성장하였다. 한소망교회에 있어서 예배와 소그룹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며, 한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근간이다.

⁷⁴ 한소망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한소망교회 30년 이야기*, 36-37.

⁷⁵ 류영모,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서울: 서로 사랑, 2002), 64.

그러던 중,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고, 한소망교회의 예배와 소그룹도 그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방역당국에 의해 현장 예배와 현장 소그룹 모임이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런 신학적 논의조차 없이 당면하여 시작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으로 인해 온 교계가 우왕좌왕하였다. 류영모 목사는 ‘본질과 폼(form)’의 정의를 통해 이 어려움을 정면 돌파해 나갔다.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의 문제는 ‘본질과 폼’의 문제예요. 칼이 우리 목을 막아도 우리는 그 칼을 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는 본질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기 시대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폼에 관한, 문화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면 폼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⁷⁶

한소망교회는 팬데믹 상황에 맞추어서 ‘전면 비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의 예배 사역’, ‘현장 중심 예배 전환 시 예배 사역’, ‘Covid-19 종식되었을 때 예배 사역’의 세 가지로 사역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다. 이러한 과감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도들은 2020년 5월 관련된 사역 세미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더 구체화되었고 급기야 2020년 7월 12일 한소망 온라인 교회가 론칭되고 정식 운영이 시작되었다.

한소망 온라인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휴대폰이나 TV

⁷⁶ 한소망교회, *주님의 심장속에 있는 교회-한소망교회 30년 이야기*, 291.

화면을 통해서도 똑같이 예배의 현장감이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외에도 온라인 소그룹(목장) 모임을 지원⁷⁷하고 교회의 신앙 양육 프로그램인 ‘비전의 사다리’를 지원했다. 또 교회 현장에 올 수 없는 새가족을 위해 온라인 교인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성도가 온라인으로 교인 등록하는 일들로 이어졌다.⁷⁸ 한소망교회가 어떻게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현장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 소그룹 모임으로 전환했는지 그 구체적인 소개와 방법론은 다음 섹션에서 다룰 것이다.

류영모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현장에 나올 수 없어서 시작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이지만, 오히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유비쿼터스 교회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여기에 내 생명을 건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성은 통전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예배와 말씀에서 얻은 신앙의 가치가 현장 속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비쿼터스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교회라는 의미죠. 각자가 흩어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와 다를 바 없다는 인소싱과 아웃소싱의 조화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⁷⁹

⁷⁷ 매주 목장 모임에서 활용 가능한 포인트 설교, 임재 찬양, 피아노 반주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⁷⁸ 한소망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한소망교회 30년 이야기*, 293.

⁷⁹ 류영모,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유비쿼터스 교회” *교회성장* (2021년 3월호), 147-148.

유비쿼터스라는 하나의 시대 흐름을 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의 내용이 유비쿼터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흩어진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흩어진 모든 삶 속에서 소그룹 공동체로 연결 가능한, 그것이 한소망교회가 추구하는 유비쿼터스 교회의 모습이다. 한소망교회의 소그룹 사역에는 소위 ‘방학’이 없다. 많은 교회들의 여름 휴가철이 되면 구역모임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는데, 한소망교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소그룹 모임을 중단한 적이 없다. 그 이유를 ‘셀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이라는 교회 내의 구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녹아들어 가야 하는 것이 셀교회의 본질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셀모임의 ‘폼’만 그때그때 바뀔 뿐이다. 그러하기에 ‘유비쿼터스 교회 :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교회’라는 류영모 목사의 정의는 한소망교회에게는 어쩌면 처음부터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한소망교회는 팬데믹 이전부터 ‘언제든(Anytime)’, ‘어디서든(Anywhere)’, ‘어떻게든(Anything)’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자 하는 유비쿼터스적 교회였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예배의 방법론

한소망교회의 예배는 Covid-19 팬데믹 사태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이미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되었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언제든지 가능하였다. CTS 등 다양한 기독교 방송매체에

교회의 예배가 송출되고 있었기에 예배당에서는 총 7대의 카메라가 현장감 있게 예배의 현장을 잡아내었다.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은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완벽히 갖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 중계뿐만 아니라, 한소망교회는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교회의 모든 헌금이 온라인화되어 있었다. 다음은 2012년 3월 11일 주보의 봉헌 안내이다.⁸⁰

<그림8> 2012년 한소망교회 온라인 봉헌 주보 안내⁸¹

★ 온라인 봉헌 방법 농협 520-17-003572 예금주 한소망교회			
십 일 조	헌금액 + 1원	절 기	헌금액 + 6원
주정(주일)	헌금액 + 2원	천 수 림	헌금액 + 7원
선 교	헌금액 + 3원	일 천 번 제	헌금액 + 8원
감 사	헌금액 + 4원	사랑의나눔	헌금액 + 9원
비전채플건축	헌금액 + 5원		
입금자명 : 본인이름 + 고유번호(배우자이름)			

대부분의 교회들이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온라인 봉헌 시스템을 고민하고 갖추기 시작한 것을 생각할 때 한소망교회의 온라인 봉헌 시행 시점은 매우 놀랍다. 동명이인의 행정처리를 염두에 두고 이름과 고유번호⁸²로 입금자 표기를 구성하고

⁸⁰ 필자가 한소망교회 홈페이지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주보 정보로 실제로는 더 이전부터 온라인 봉헌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⁸¹ 2012년 3월 11일 한소망교회 주보

⁸² 한소망교회의 고유번호는 교인 등록시 교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부여되는 번호로 보통 5 자리의 숫자로 구성된다.

봉헌 종류를 원단위의 금액으로 구분하게 한 것도 매우 창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생각보다 행정처리에 효율적이다. 위의 봉헌 안내와 10년이 지나 팬데믹 사태 한가운데 있는 현재 후보의 봉헌 안내는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림9> 2022년 한소망교회 온라인 봉헌 후보 안내⁸³

온라인 봉헌안내					
● 십일조	봉헌액 + 1원	● 비전채플현당	봉헌액 + 5원	● 일천번제	봉헌액 + 8원
● 주정(주일)	봉헌액 + 2원	● 절기	봉헌액 + 6원	● 섬김백일조	봉헌액 + 9원
● 선교	봉헌액 + 3원	● 천수림	봉헌액 + 7원	● 통일준비	봉헌액 + 10원
● 감사	봉헌액 + 4원	● 한소망 역사관 · 드림하우스	봉헌액 + 7원		
십일조 등	농협 520-17-003572	한소망교회		입금자명 : 본인이름	고유번호

한소망교회가 팬데믹 사태 이후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봉헌에 대해 성도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던 이유이다. 한소망교회는 어쩌면 온라인 중계, 온라인 봉헌 등 팬데믹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사태 이전에 한소망교회의 예배사역에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 또는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신앙권면을 하거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한 흔적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보통 현장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면, 온라인 예배, 즉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⁸³ 2022년 1월 9일 한소망교회 후보

수 있는데, 이는 선부른 생각이다. 이미 온라인 예배를 위해 환경적인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던 한소망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어떠한 점들에 중점을 두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유비쿼터스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소망교회가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사역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2> 전면 비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예배사역 단계⁸⁴

#1 전면 비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예배사역		
사역 1단계	핵심	온라인 예배의 역동성을 살리라!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소망 온(溫)라인 사진 이벤트 * 위임목사님 영상 편지(3회), 예배 회복 영상(1회) * 성금요온라인예배(3.29)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 주일예배 시 온라인 목장 및 비전의 사닥다리 간증
사역 2단계	핵심	온라인 예배로 무뎀진 영성 회복하기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예배 참여와 예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예배 중 줌 화상연결 * 홈페이지 참여결단 신청, 댓글 시상
사역 3단계	핵심	온라인 예배를 통한 한소망교회 비전 회복하기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아서는 자들의 열흘기도회(8.20~31) (말씀: 어둔시대 빛 난 별 에스더) * 뉴노멀, 새로운 구원의 시작(세이레 기도회. 9.1~26) (말씀: 사사기 새롭게 보기) * 하나님 품에서 쉬라(추석연휴기간기도회, 9.28~10.3) (말씀: 룯기 새롭게 보기) *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40일 기도회. 10.18~11.14) (말씀: 성령으로 살다. 십자가 능력으로 살다. 아버지 마음으로 살다. 은혜의 영성으로 살다.)
사역 4단계	핵심	성도들이 1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방문하여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하라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곡의 벽 기도회 * 충일교회 성전 뜰 차량 기도회

사역의 단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1단계이다. 한소망 온라인 목회매뉴얼은

⁸⁴ 한소망교회, 한소망 온(All)라인 목회매뉴얼 (파주: 한소망교회, 2021), 5

온라인 예배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을 ‘온라인 예배의 역동성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 예배의 정의라면, 그 정의가 언제 어디서나 수준 낮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유비쿼터스 목회 방법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유비쿼터스 목회가 현장 중심의 목회를 보완-확장-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이 안될 때 차선을 선택한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유비쿼터스 목회는 큰 한계를 그 처음부터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유비쿼터스 예배는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 안에서만 정의되어서는 안된다. 유비쿼터스 예배가 그 자체로 예배가 가져야 할 역동성을 지니게 될 때 의미 있는 하나의 예배 사역이 될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드라이브 인 워십’, ‘온라인 사진 이벤트’, ‘즐거로운 예배 생활’, ‘Zoom 참여 예배’, ‘온라인 댓글 참여’ 등 다양한 예배 캠페인을 펼쳐갔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참여와 예배의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⁸⁵

한소망교회는 온라인 예배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온라인 송출 환경에 다양한 목회적 요소를 새롭게 더하였다. 첫 번째로는 경건한 예배 준비다. 한소망교회는 모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예배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온 성도들에게 송출한다.

⁸⁵ 한소망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한소망교회 30년 이야기*, 291.

<그림10> 온라인 예배 10분 전 안내 문자⁸⁶

주일 8시 1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예배 - <http://ido.kr/jciR>

안내 문자를 통해 10분 전부터 여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토록 하며,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잊어버리거나 뒤늦게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자들을 돕는 것이다.

예배 준비에 있어서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환경이다. 아무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해도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예배자 또한 정돈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⁸⁶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I)라인 목회매뉴얼*, 7.

<그림11> 예배장소 세팅을 위한 ‘꾸며줘 홈즈 이벤트’⁸⁷

한소망 온라인 이벤트 “꾸며줘! 홈즈”

- 대상 :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목장
- 방법 :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소 (거실, 안방, 주방, 공부방)를 예배 처소로 꾸민 후, 사진·영상을 속교회 교역자에게 전송
- 기간 : 7월25일(주일)까지
- ※ 참여하신 가정중에서 선별하여 특별한 선물 증정



“우리 집을 예배 공간으로!”
*기간 : 7월 18일 ~ 25일

-참여방법-

1. 우리 집을 예배 공간으로 예쁘게 꾸민다
2. 사진을 찍어 속교회 목사님에게 보낸다
3. 은혜로운 예배로 드리고 선물도 받는다

한소망교회의 온라인 예배 ‘꾸며줘 홈즈’ 이벤트는 온라인 예배 시 예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에 나올 수 있었던 목회 사례이다. 예배자들은 가정이나 직장에 예배 장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는 등 최대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데, 이는 다른 예배자들에게 좋은 모범과 도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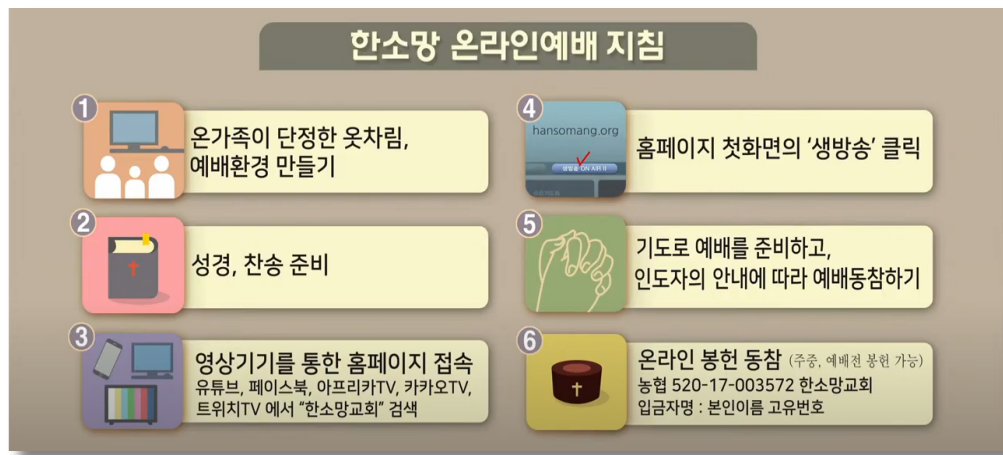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의 역동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배를 위한 철저한

⁸⁷ 한소망교회 홈페이지(www.hansomang.net) 한소망소식 게시판 2778번

준비가 필요하다. 앞서 논했듯이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정의가 언제 어디서든 아무렇게나 쉽게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소망교회가 온라인 예배 10분 전에 화면으로 송출하는 예배 안내 화면은 앞서 나누었던 시간과 장소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림12> 온라인 예배 준비 안내 화면⁸⁸



한소망교회에서 역동성 있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 ① 정확한 시간
- ② 단정한 옷차림과 예배 환경 세팅
- ③ 성경, 찬송 준비
- ④ 영상기기 준비 완료

⁸⁸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I)라인 목회매뉴얼, 7.

⑤ 경건하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

⑥ 온라인 봉헌 준비

의 총 6가지이다.

그중에 특별히 ④ 영상기기 준비에 있어서는 되도록 핸드폰이나 작은 테블릿 PC보다는 TV 화면이나 모니터 연결을 통해 큰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결 기구인 ‘미러링 케이블’ 사용법을 전 교인에게 교육하고 교회 행정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는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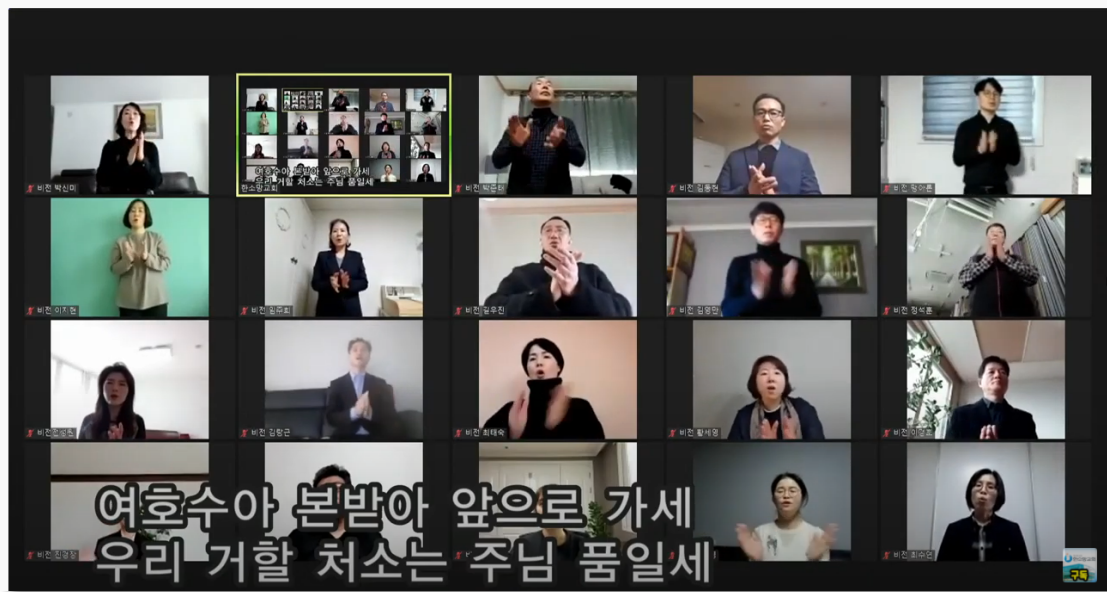
<그림13> TV 화면으로 예배하는 방법 안내



역동성 있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두 번째 목회 방법은 예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현장의 예배가 아무리 역동적이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구경꾼의 태도에 머물러 있다면 예배의 역동성은 예배자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예배 참여의 문제점은 온라인 예배에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 같은 기기에서 예배도 참여하고 영화와 유튜브도 시청하는 예배자들에게 예배를 특별하고 역동성 있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은 관람자에서 참여자로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에 있다.

<그림14> 온라인 예배 ZOOM 참여⁸⁹



한소망교회의 온라인 예배 시에는 성도들의 참여도를 올리기 위해 모든 예배 시에 40여 명의 성도들이 ZOOM으로 접속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 ZOOM 화면을 송출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준다. ZOOM으로 자기 모습을 노출하여

⁸⁹ Ibid.,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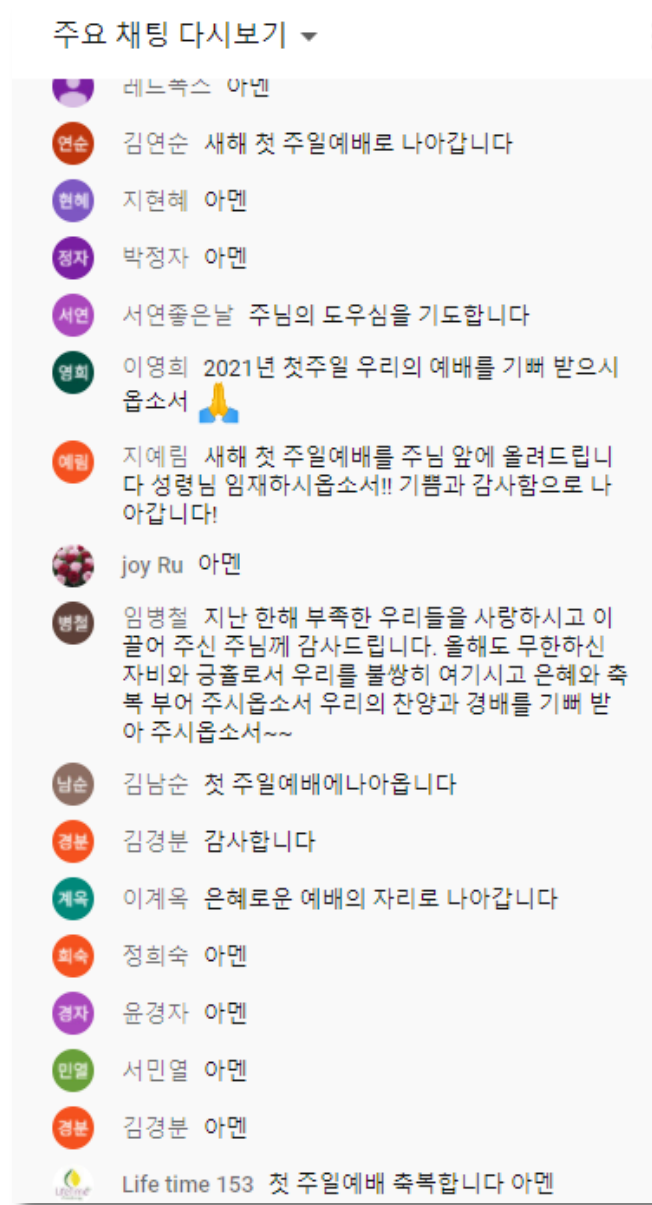
참여 중인 예배자들의 참여도가 높음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ZOOM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화면을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온라인으로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교육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성도들은 모범이 되는 ZOOM 참여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며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온라인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로 예배를 참여하게 된다. 케빈 리는 그의 저서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에서 온라인 예배는 ‘관람’ 이 아니라 ‘참여’ 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송출할 때 예배자가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배자의 환경을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환영, 예배로의 부름, 찬양, 설교, 행동으로의 부름의 구성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때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을 관람이 아닌 참여의 태도로 인도하는 것이다.⁹⁰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한소망교회의 모든 온라인 예배에는 댓글 창이 활성화되어 운영된다.

⁹⁰ 케빈 리,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서울: 두란노, 2021), 100.

<그림15> 온라인 예배 유튜브 댓글 창⁹¹



온라인 예배자들은 예배에 접속하면 댓글 창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⁹¹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ll)라인 목회매뉴얼*, 7.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등의 짧은 참여 인증 댓글을 자유롭게 달며, 찬양과 기도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댓글에 참여하는 교우들의 예배 참여도가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며, 무수히 올라가는 댓글들을 보며 온라인 예배자들은 ‘지금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예배가 가져야 할 공동체성을 더욱 간직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댓글에 예배와 상관없는 질문, 토론, 비방, 광고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댓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예배 봉사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의 역동성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교회와의 끊임없는 소통이다. 한소망교회의 온라인 예배 매뉴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배 후에 가지는 응답과 소통의 과정 또한 예배의 역동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국에서 온라인 사역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새들백 교회(Sadlback Church)는 모든 온라인 예배 영상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붙여 놓는다.

=====

TAKE YOUR NEXT STEP(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

방금 들은 메시지에 도전과 용기를 얻었습니까? 커넥션 카드를 작성하시면 당신을 위한 다음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⁹²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일방적인 예배 참여를 넘어서서 교회와 영적인 소통을

⁹² <https://www.youtube.com/watch?v=qQ2EknROM88> (2022년 1월 17일 접속)

이어가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의 온라인 커넥션 카드(Connection Card)로 연결된다.

<그림16> 새들백 교회의 온라인 커넥션 카드⁹³

Wufoo
By SurveyMonkey

Connection Card

My Response to Today's Message:

I made the decision to follow Jesus

I'm considering opening my life to Jesus

I want to learn about becoming a member in Class 101 & 201, 301, 401

I want to belong to a small group

I'm interested in resources to help me grow spiritually

I want to be baptized

I want to get involved at Saddleback by serving

I want to help share God's love in my community &/or around the world

Do you have a prayer request, feedback, or question?

Name

First Last

Email

Phone Number

Select the Saddleback location near you:

No campus

This is my first time.

Submit

⁹³ <https://saddlebackchurch.wufoo.com/forms/connection-card-pvzkzv01f1m48g/> (2022년 1월 17일 접속)

커넥션 카드(Connection Card)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들은 설교에 대한 나의 응답을 8가지로 나누고 있다.

-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 나는 101~401반의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 나는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나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 나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 나는 새들백교회에서 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나는 이웃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8가지 응답들은 모두 세부적이며 구체적이다. 그리고 중복체크가 가능하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응답을 마친 후 이어지는 자유로운 텍스트 박스(Text box)를 통해 기도 요청 또는 필요한 추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응답의 요구와 참여는 마치 현장예배 후 예배당을 나오며 입구에선 목회자와의 인사하며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온라인 예배 후 화면 속에 목회자 또는 봉사자들과 나의 삶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며 역동적이다. 새들백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는 케빈 리 목사는 커넥션 카드(또는 응답 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카드가 온라인에 준비되면 교회 웹사이트는 교인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교인들이 많이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교회도 커넥션 카드의 작성률이 높지는 않다. 특히 위에 적힌 ‘반응’ 들은 초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도구라기 보다 참여자들을 섬기는 통로로 여겨야 한다.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작성했다면, 온라인으로 사역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⁹⁴

마지막으로, 흠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유비쿼터스 예배에서 성찬예식은 과연 가능할까? 성찬예식은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 매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성찬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야 하기에 모이지 않고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 진행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소망교회도 팬데믹 초기에는 온라인 예배시의 성찬예식 진행을 포기했었지만, 팬데믹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의 중요 요소인 성찬예식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었다. 현장에 모일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소망교회가 시행한 온라인 성찬은 유비쿼터스 성찬예식의 가능성과 신학적 논의에 해답은 아닐지라도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성찬성례전의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2) 온라인 성찬성례전⁹⁵

- ① 온라인 비대면 성찬식을 위해 개인 성찬 키트를 사전 제작한다.
- ② 성찬 키트는 목회자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접 수령토록 한다.

⁹⁴ 케빈 리,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110-111.

⁹⁵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ll)라인 목회매뉴얼*, 15-16.

③ 수세 받지 못하여 성찬에 참여가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교육용 빵 세트를 함께 준비한다.

④ 온라인 예배 시, 집례자의 인도를 따라 성찬에 참여한다.

⑤ 비대면으로 인하여 본당 성찬이 불가능할 시, 현장 스태프는 예배 후 개인 차량 혹은 개인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찬에 참여한다.

온라인 성찬성례전을 진행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목회자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인 성찬 키트를 수령토록 한다는 것이다. 성찬예식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목회자를 통한 ‘분병, 분잔’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또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의미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성찬예식은 ‘다시보기 영상’ 없이 실시간으로만 진행하였다. 사용된 개인 성찬 키트 용기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하였고, 떡과 포도주는 현장예배 성찬예식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림17> 개인 성찬 키트⁹⁶



⁹⁶ Ibid., 16.

온라인 성찬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가정에서 녹화된 온라인 성찬 진행 영상을 보며 언제든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정 성찬 예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유비쿼터스 소그룹 모임의 방법론

한소망교회가 Covid-19 팬데믹상황을 맞아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전환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온통목장’⁹⁷이다.

<그림18> 온통목장의 심벌⁹⁸



온(ON)은 현장에서 모일 수 없어 중단되었던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과 그 방법으로 온(ON)라인 목임을 제안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통(通)은

⁹⁷ 한소망교회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호칭한다.

⁹⁸ Ibid., 41.

교회와 소그룹, 교역자와 성도 간의 원활한 소통(通)을 뜻한다.⁹⁹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와 구성원¹⁰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한소망교회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온라인 환경 조성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팀으로 ‘한소망미디어연구소’ (이하 한미소)를 먼저 만들어 담당하게 했다. 다음은 한소망교회 한미소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심벌이다.

<그림19> 한미소의 사명과 비전, 심벌소개¹⁰¹

B. 사명과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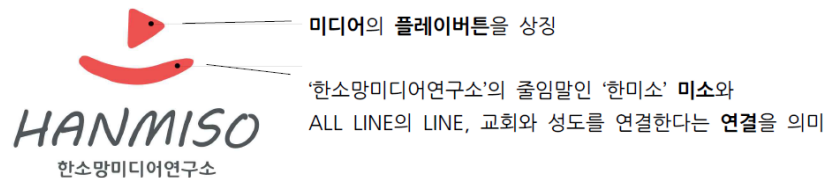
1. 사명

한소망 미디어 연구소는 (교회와 성도간)쉽고,정확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위하여 존재한다

2. 비전

- a. 한미소 웹서비스를 통하여 비전의사닥다리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 b. 한미소 유튜브채널을 통하여 신앙성장과 정보전달을 위한 미디어를 공유한다
- c. 아카데미를 통하여 사역자를 양성한다

3. 심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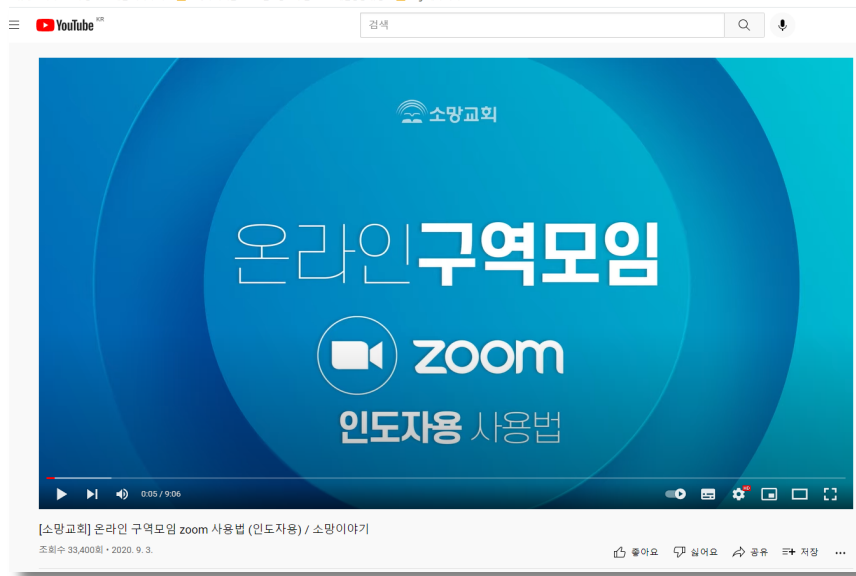
⁹⁹ Ibid., 41.

¹⁰⁰ 한소망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목자’, 구성원을 ‘목원’이라고 호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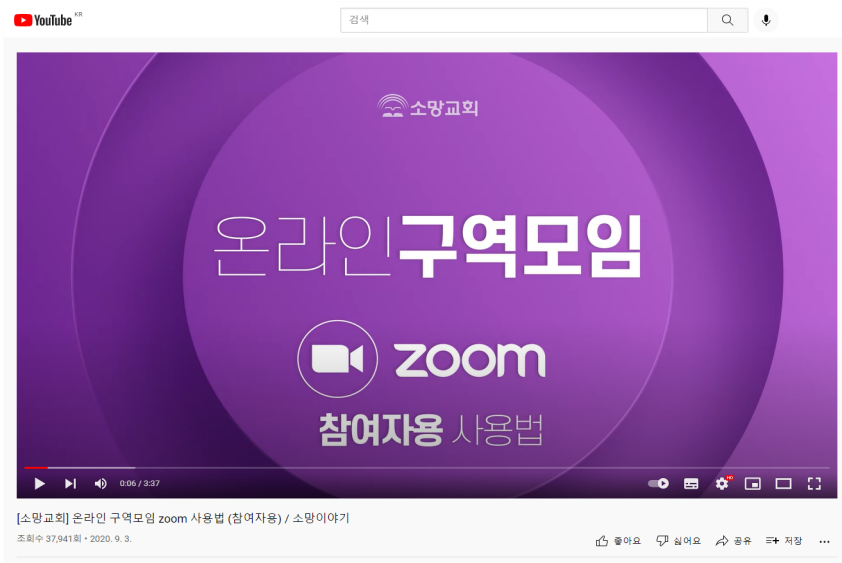
¹⁰¹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ll)라인 목회매뉴얼*, 229.

현장 및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교육들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언제든지 반복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지금은 다양한 온라인 소그룹 프로그램이 활용되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대부분의 온라인 소그룹 모임 시 ZOOM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현장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교육은 ZOOM교육이었다. 한소망교회도 ZOOM 사용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은 ZOOM 활용법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소망교회가 ZOOM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교회 소그룹을 위한 ZOOM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 제작되어 유튜브로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소망교회는 소망교회(서울 강남구)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였다.

<그림20> 온라인 소그룹 모임 ZOOM사용법(리더용) 영상¹⁰²



<그림21> 온라인 소그룹 모임 ZOOM사용법(구성원용) 영상¹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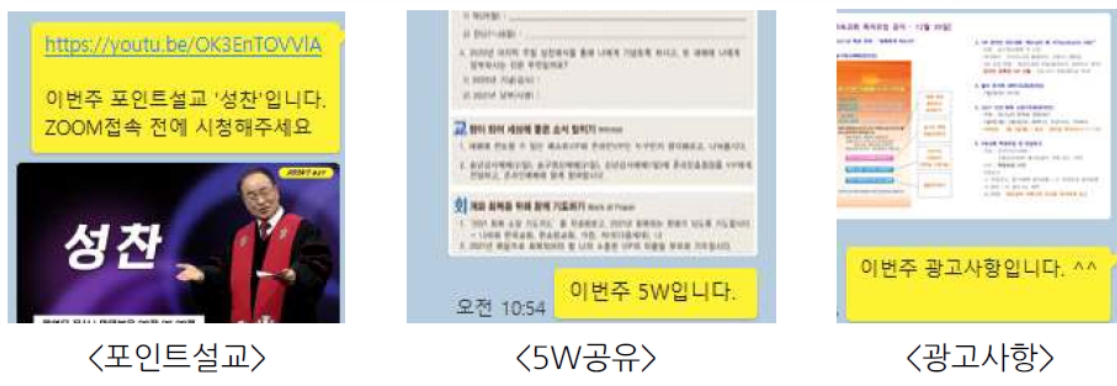
¹⁰² <https://youtu.be/e3fLe6SySZg> (2021년 12월 17일 접속)

¹⁰³ <https://youtu.be/k4lRQFvdhoY> (2021년 12월 17일 접속)

프로그램(또는 앱)에 대한 사용법이 숙지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모임을 진행해야 한다. 한소망교회는 온라인 소그룹 모임으로의 전환 초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을 ZOOM과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아직 온라인모임이 익숙하지 않은 전환 초기에는 소그룹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시 메신저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모임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그룹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ZOOM 접속시간을 공지하고, 소그룹에 필요한 자료들(설교요약영상, 소그룹 교제, 공지사항)을 먼저 공유하여 모임 전에 각자 숙지하고 오도록 한다.

<그림22> 카카오톡을 활용한 소그룹 모임 전 사전 나눔¹⁰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의 진행은 시간에 따라 크게 40분 모임과 80분 모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진행 방식에 차이는 오로지 온라인 모임에 대한 구성원의 적응력

¹⁰⁴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ll)라인 목회매뉴얼*, 48.

차이이다. 40분 모임 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모임 전 개인 묵상, 광고 및 모임 후 기도제목 나눔까지 온라인 모임 안에서 다 가능하도록 한 것이 80분 모임 매뉴얼이다. 그 각각의 온라인 모임 진행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표3>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목장모임 매뉴얼(40분)¹⁰⁵

	카톡방	ZOOM	목자 진행
모임전 (20분전)	모임시간 공지 포인트 설교(링크) 공유 5W(이미지) 공유 공지사항 공유 ZOOM링크 전달	새로운 회의 만들기	카톡 확인을 안 하는 목원 전화 소통 확인
10분		Welcome	지난 주일예배 참석 여부 영적 상태 점검
15분		Word	5W에서 3,4번 위주로 나눔 한 명이 너무 길게 나누지 않도록 인도
10분		Work	기도제목 한 가지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5분	온라인 VIP초청장 공유	목장봉헌 및 복음전파	목장봉헌을 안내하고 VIP에게 링크 전달하기
모임후	광고 및 인사 목장 기도제목 공유		중요한 교회 광고 재공지 다음 모임 시간과 방법 공지 목자는 적은 기도제목을 정리하여 카톡방에 공유

¹⁰⁵ Ibid., 49.

<표4>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목장모임 매뉴얼(80분)¹⁰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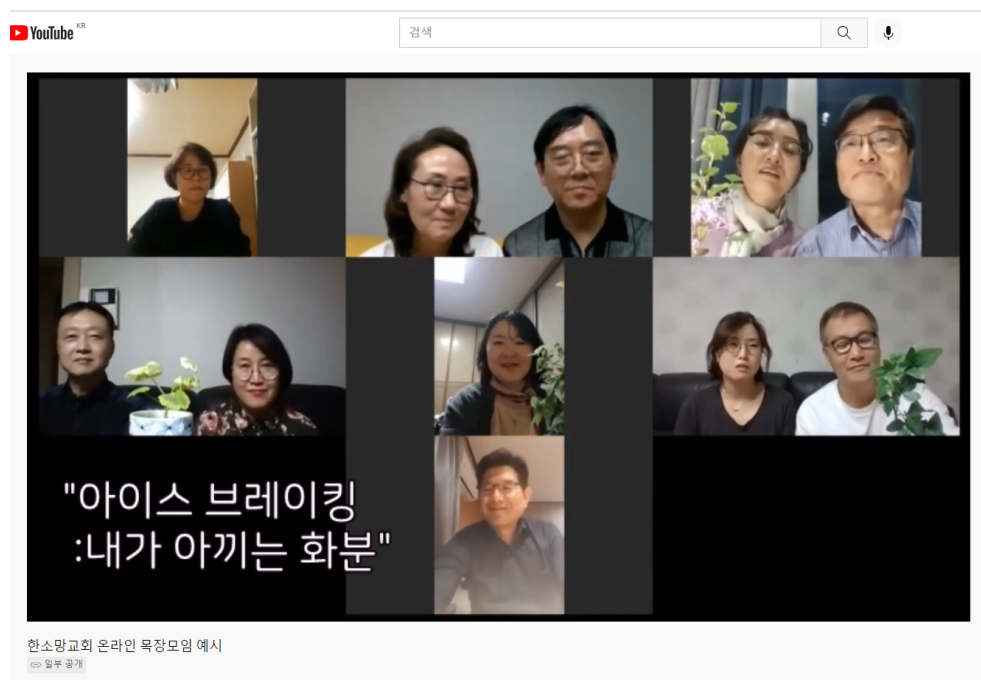
	카톡방	ZOOM	목자 진행
모임전	모임시간 공지 포인트 설교 공유 5W(이미지) 공유 공지사항 공유 ZOOM링크 전달	새로운 회의 만들기	카톡 확인을 안 하는 목원 전화 소통 확인
20분		Welcome	지난 주일예배 참 여부 영적 상태 점검
5분		찬양	찬양 음원 활용 (개인-음소거)
10분		Word-포인트설교	공유 화면 또는 링크 활용
3분		Word-본문읽기	1절씩 돌아가면 통독
2분	ZOOM링크 전달	재접속	재접속 안내
15분		Word-해석/적용	목자의 사회에 따라 진행
15분		Work	기도제목 한 가지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5분	온라인 VIP초청장 공유	목장봉헌 및 복음전파	목장봉헌을 안내하고 VIP에게 링크 전달하기
5분		광고 및 인사	중요한 교회 광고 재공지 다음 모임 시간과 방법 공지
모임후	목장 기도제목 공유		목자는 적은 기도제목을 정리하여 카톡방에 공유

¹⁰⁶ Ibid., 49.

80분 모임 시 중간에 2분의 재접속 시간이 있는 것은 ZOOM 프로그램이 40분 이상 이용할 경우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접속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 굳이 유료로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한 달 사용요금이 크지 않기에 되도록 유료로 이용하여 끊임 없이 모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ZOOM의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는 처음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는 소그룹과 생동감 있는 온라인 모임을 하길 원하는 소그룹들에게 좋은 가이드 자료로 활용된다.

<그림23> 한소망교회 온라인 소그룹 모임 예시 영상¹⁰⁷



¹⁰⁷ https://youtu.be/-_E711cNDpQ

온라인을 모임을 잘 마쳤다면, 교회와 소통해야 한다. 한소망교회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소그룹 보고서를 모바일 앱을 제작하여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소그룹 모임 후 주일까지 기다려 예배시간에 직접 제출하던 방식에서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제출이 가능하고, 상위 리더십과 교역자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목장보고서를 개발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편의성이다.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이 수기로 작성하여 현금함에 넣는 것보다 불편해서는 결코 온라인으로 사역이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원가입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까먹지 않게 외우고 다녀야 하는 로그인 기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간단한 비밀번호와 쿠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수십년간 교회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 소그룹 보고서가 교회 공간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는 데 6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한소망교회 온라인 목장보고서의 양식과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24> 한소망교회 소그룹 모임 온라인 보고서¹⁰⁸

목장모임 보고		
속교회	선택	속
지역	선택	지역
목장		목장
목자		
인원		명
목장예배 내용		
일시	2021	월 일
내용	<input type="radio"/> 현장 <input type="radio"/> 온라인 <input type="radio"/> 소통	
참여인원		명
봉헌		원
세부 참석 현황		
이름	주일예배	목장예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¹⁰⁸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ll)라인 목회매뉴얼, 41.

<그림25> 한소망교회 소그룹 온라인 보고서 작성방법¹⁰⁹

작성 암호를 입력해주세요.

④ Password(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2021

목장모임 보고

속교회 속

지역 지역

목장 목장

목자

인원

[목장모임 보고]

⑤ 속교회 선택

⑥ 지역 선택

⑦ 목자 선택

⑧ 목자 이름을 직접 적어주세요.

⑨ 목장 총인원을 적어주세요.

목장예배 내용

일시

내용 현장 온라인 소통

참여인원

봉헌 원

[목장예배 내용]

⑩ 일시란에 를 입력해주세요.

⑪ 목장모임 내용에 **V(체크)** 해주세요.

- 현 장: 직접대면
- 온라인: ZOOM(줌), 라인, 그룹콜 등
- 소 통: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⑫ 참여인원을 적어주세요

⑬ 봉헌금액을 적어주세요.

세부 참석 현황

이름	주일예배	목장예배
백드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드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야고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요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원추가		

[세부 참석 현황]

⑭ 이름: 목원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⑮ 주일예배: 참석하셨다면 **V(체크)** 해주세요.

⑯ 목장예배: 참석하셨다면 **V(체크)** 해주세요.
(참석하지 못했다면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⑰ **+인원추가**를 누르고 목원을 추가합니다.
-한 번 기입한 목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요청

백드로장사, 정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계심

[중보기도 요청]

⑱ 목원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적어주세요
-기도제목 변경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저장하기

⑲ 온라인목장보고서 작성을 마쳤다면
보고서 저장하기 를 반드시 눌러주세요.

⑳ 온라인목장보고서가 전송되었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교역자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심방

¹⁰⁹ Ibid., 42~43.

사역¹¹⁰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매뉴얼화하였다. 온라인 심방 사역시 ZOOM 프로그램 또는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진행하는데, 원래 심방 사역은 교역자 외에 1~2명의 리더(또는 교우)가 동행한다. 그러한 경우에 ZOOM 프로그램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심방 대상자가 ZOOM 프로그램에 대해 생소함을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 사역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면,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하여 교역자와 1:1로 심방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 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통화하듯이 영상 심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심방 전에 함께 참여하는 리더(또는 교우)와 심방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전 안내지를 전송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 또한 꼭 필요하다.¹¹¹

¹¹⁰ 교역자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성도의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 설교, 기도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한소망교회는 ‘심방’이라는 용어 대신에 ‘방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¹¹¹ Ibid., 46.

<그림26> 온라인 심방 안내지(동행자용) <그림27> 온라인 심방 안내지(대상자용)

2021 온라인 전교우 방문 (지역목자·목자 준비사항)

1. 사전 준비

- 1) 일정 점검
- 2) 하루 전 일정 재확인 : 목자 > 방문대상자, 지역목자
- 3) 방문대상자의 ZOOM 또는 카톡 현황 확인
 - ZOOM이 처음인 목원 도움
 - : 미리 ZOOM설치 및 하루 전 리허설
 - 방문대상자가 ZOOM이나 카톡이 미숙 할시 목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함께 참여 가능
 - 위의 (1)(2)가 불가능할시 추후 현장방문심방 가능 여부를 속교회 목사님과 협의
- 4) 방문대상자의 기도제목 확인
 - : 하루 전에 목사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 5) 필요한 안내 전달(진행사항, 봉헌방법 등)

2. 방문 참여

- 1) 5분 전 오픈된 ZOOM방 입장
- 2) 말씀 전 기도 : 지역목자(부재시 목자가 기도)
 - 기도는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을 위한 내용으로 1분 정도로 준비하여 기도함 (방문대상자와 가정을 위한 구체적 기도 자제)
- 3) 지역목자나 목자가 대화를 주도하지 않도록 주의

2021 온라인 전교우 방문 (방문대상자 준비사항)

1. 사전 준비

- 1) 일정점검
- 2) ZOOM, 카톡이 미숙할 시 하루 전 목자와 리허설
- 3) 기도제목 보내기 : 하루 전 목자 또는 목사님께
 - 카톡이나 문자에 기록하여 전송
 - 또는 종이에 글로 적어 사진 찍어 전송

2. 방문 참여

- 1)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 준비
- 2) 5분 전 오픈된 ZOOM방 입장
 - 되도록 화면이 큰 테블릿이나 노트북
 - 또는 가능한 경우 TV에 연결하여 참여 권장
- 3) 성경책 준비
- 4) 전교우방문 감사헌금은 온라인봉헌(+4원) 또는 현장예배시 봉헌



심방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 소그룹 모임과 동일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심방 전후로 최대한 활용한다. ZOOM을 활용한 40분 심방 사역의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ZOOM을 활용한 교우 방문(40분)¹¹²

(1) 방문대상자가 ZOOM 활용에 익숙하고, 목자와 지역목자, 전도자 등 교우 방문 동행자가 있을 시 ZOOM으로 진행한다.

(2) 모든 방문 참여자는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심방 중에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¹¹² Ibid., 45.

(3) 방문 대상자는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고, 기도제목을 교역자에게 미리 전달한다.(카톡, 문자, 수기 후 사진촬영)

(4) 교역자는 인사를 나눈 후 신앙상담을 한다(20분)

- 교우 방문 매뉴얼에 따른 내용들 확인(비전의 사다리, 인적사항, VIP 등)

(5) 신앙고백 후 지역목자(또는 목자)가 방문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2분)

- 기도는 예배와 말씀을 위한 기도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한다.

(6) 교역자는 가정을 위해 준비된 말씀을 나눈다.(10분)

(7) 가정의 기도제목을 위해 축복기도한다.(5분)

(8) 드려진 교우 방문 감사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또는 축도로 마무리한다.(3분)

“혹시 방문 감사헌금을 준비하셨으면 제가 드려진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9) 필요한 안내와 인사를 나눈 후 종료한다.(필요시 SNS를 통해 전달 가능)

- 온라인 봉헌 안내

“드려진 감사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하시면 되고, 입금액에 +4원을 더하시면 됩니다.”

- 비전의 사닥다리 신청 : 목자가 신청토록 안내 또는 교회 홈페이지 안내

<표5>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심방 진행표¹¹³

	카톡방	ZOOM	교역자
방문전	방문가정 기도제목 공유 방문시간 공지 ZOOM 링크 전달	새로운 회의 만들기	
20분		신앙상담	비전의 사닥다리 확인-권면 교적 인적사항 누락 확인 신앙상담(기도제목)
2분		교우방문예배	신앙고백/예배를 위한 기도
10분			말씀
5분			축복기도
3분			봉헌기도 및 주기도(축도)
방문후	필요한 추가 안내 전달	인사 및 광고	

한소망교회는 현장 중심의 교회에서 팬데믹 이후 온라인으로도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목회 시스템을 전환하였다. 현장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소그룹 사역과 심방 사역 역시 이 대대적인 시스템 전환의 주요 대상이었다. 다음 표는 지난 5년간 한소망교회 장년들의 소그룹 모임 평균 참석인원을 보여준다.

¹¹³ Ibid., 46.

<표6> 한소망교회 최근 5년간 소그룹 모임 평균 참석인원

연도(년)	인원(명)
2017	1,404
2018	1,548
2019	1,764
2020	1,279
2021	1,576

2020년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한국 사회의 방역상황은 지금까지 달라진 점이 없지만, 한소망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소그룹 사역을 점차 회복, 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상반기에 전교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심방 사역 역시 팬데믹 사태 이전인 2019년 1,887세대 심방에서¹¹⁴, 100% 온라인 심방으로 전환한 2021년 상반기에 2,024세대 심방으로¹¹⁵ 오히려 137세대가 늘었다. 이는 교회 부흥에 따른 교인 가정의 증가도 있지만, 심방 시 집을 오픈하기 부담스러워 심방을 어려워했던 가정들과 해외, 지방 거주 등으로 이전에는 심방을 받기 어려웠던 가정들이 온라인으로 심방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심방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례들이

¹¹⁴ 2019 한소망교회 상반기 교역자 세미나 자료.

¹¹⁵ 2021 한소망교회 상반기 교역자 세미나 자료.

더하여 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가능한 유비쿼터스 목회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소망교회가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현장과 온라인 사역이 모두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회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Covid-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래의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말한다.

첫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지킨다는 선언이다. 대면(Off-Line), 비대면(On-Line)을 가리지 않고 모든(All) 성도가 올라인(All-Line)으로 예배하기로 선언했다. 둘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떤 것(행 2:46)처럼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라인(LINE)이나 줌(ZOOM)과 같은 화상채팅을 이용한 비대면 모임으로 초대교회의 원형을 지키려 몸부림치고 있다. 셋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우리 교회 양육프로그램인 ‘비전의 사다리’의 수많은 양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¹¹⁶

언제든(Anytime), 어디서든(Anywhere), 어떻게든(Anyting) 예배하고 모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유비쿼터스 교회는 성도의 입맛에 맞춘 쉽고 편리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와 거룩한 교회를 놓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이다.

¹¹⁶ 류영모, *COVID19 재난시대의 교회*, 18-19.

제 V 장

유비쿼터스 교회의 목회에 대한 설문 내용과 분석

설문 목표

본 설문은 다음의 목표를 위해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첫 번째 섹션은, 설문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신앙 현황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문 응답자의 성별과 나이, 한소망교회 출석 년 수와 소그룹 활동 년 수, 교회 내에서의 봉사 수에 대해 질문했다. 특별히 출석 년 수, 소그룹 활동 년 수, 현재 봉사 수의 질문은 이후 섹션의 질문들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섹션은, 설문 응답자가 주일성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은 온라인 예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온라인 예배 경험을 통해 기존 인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작성되었다.

세 번째 섹션은, 설문 응답자가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은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온라인 소그룹 경험을 통해 기존 인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팬데믹 이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번째 섹션은, 팬데믹 이전(~2019년)과 이후(2021년)에 받은 목회자 심방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비대면 심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데 목표를 둔다.¹¹⁷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은, 설문 응답자가 유비쿼터스(3A) 신앙생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표이다.

설문 개요

본 설문은 한소망교회 교인으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비대면 목회를 경험한 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Google Forms¹¹⁸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로 작성되었고, SNS(카카오톡)를 통해 설문 대상에게 설문지 링크를 전달하였다. 응답자의 익명을 보장하여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대한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다.

¹¹⁷ 2020년은 팬데믹 발생 첫해로 대면과 비대면 모든 심방이 중단되었던 기간이기에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한소망교회의 비대면 온라인 사역들은 2020년에 활발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¹¹⁸ 구글 설문지(Google Forms, 구글 폼)는 웹 기반 구글 문서 편집기 제품군의 일부로서 포함됨, 구글이 제공하는 설문 관리 소프트웨어이다. 구글 설문지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면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구글_설문지

<표7> 설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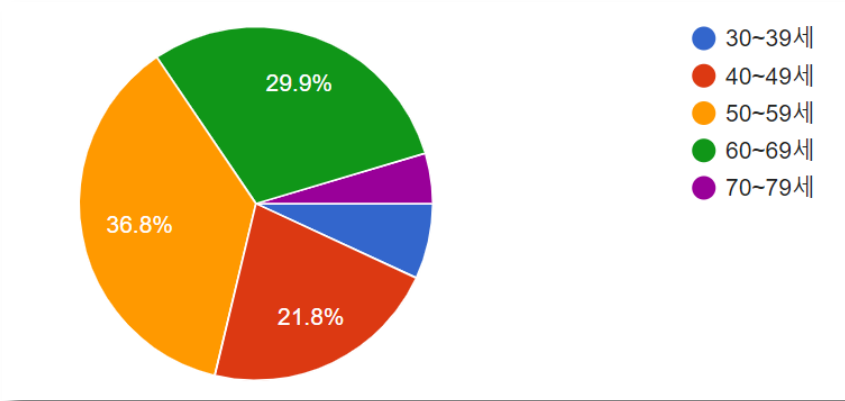
설문 제목	유비쿼터스(3A) 신앙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대상	온라인 신앙 활동을 경험한 한소망교회 장년 성도
설문 기간	2022년 1월 11일 ~ 12일
총 응답수(명)	87명
총 질문 수	25문항(답변에 따라 최대 5문항 추가 가능)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s)

설문 결과 및 분석

설문에 응답한 87명의 장년 성도들은 65.5%가 여성이었고, 34.5%가 남성이었다. 연령의 분포는 30대가 6명(6.9%), 40대가 19명(21.8%), 50대가 32명(36.8%), 60대가 26명(29.9%), 70대 이상이 4명(4.6%)였다. 40~60대가 전체의 88.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한국의 결혼 걱정 연령이 올라가면서 30대의 장년성도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70대 이상의 장년 성도는 온라인 설문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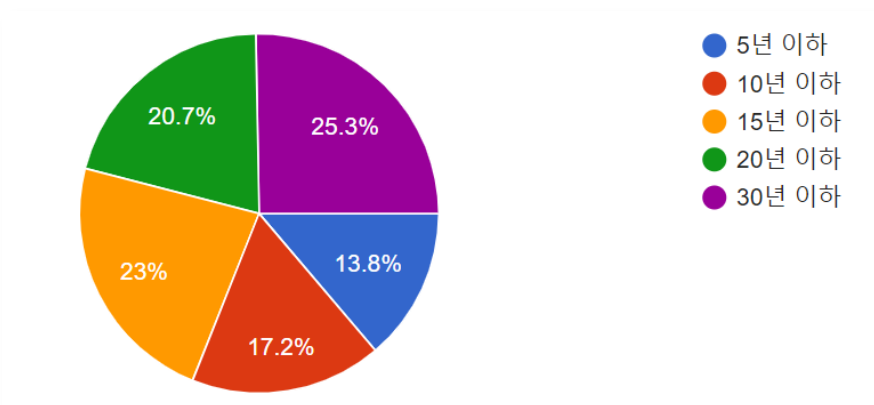
한소망교회가 30년 역사의 오래되지 않은 젊은 교회로서 기본 장년 구성도 40~60대가 가장 많기에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를 살펴보기에 있어 적절한 구성으로 여겨진다.

<그림28> 설문 응답자들의 나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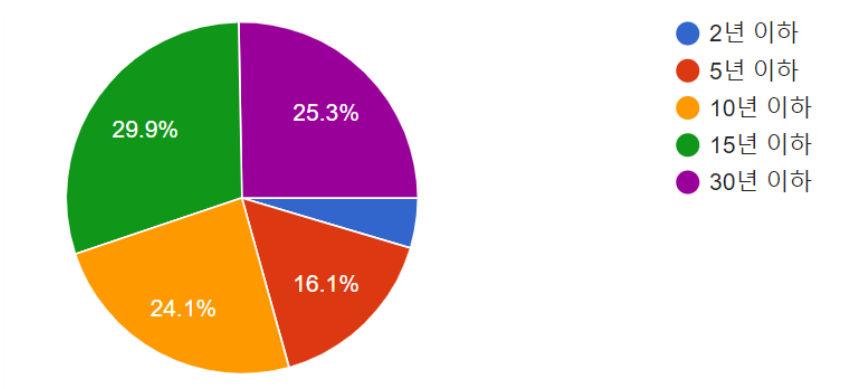
한소망교회에 출석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교회 창립 시점인 30년부터 최근 5년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5년 이하 13.8%, 10년 이하 17.2%, 15년 이하 20.7%, 30년 이하 25.3%로 응답자가 비율이 비슷하였다. 단, 한소망교회에 출석한 연수를 조사한 것이어서 응답자의 신앙 연수를 의미하는 결과는 아니다.

<그림29> 설문 응답자들의 한소망교회 출석 연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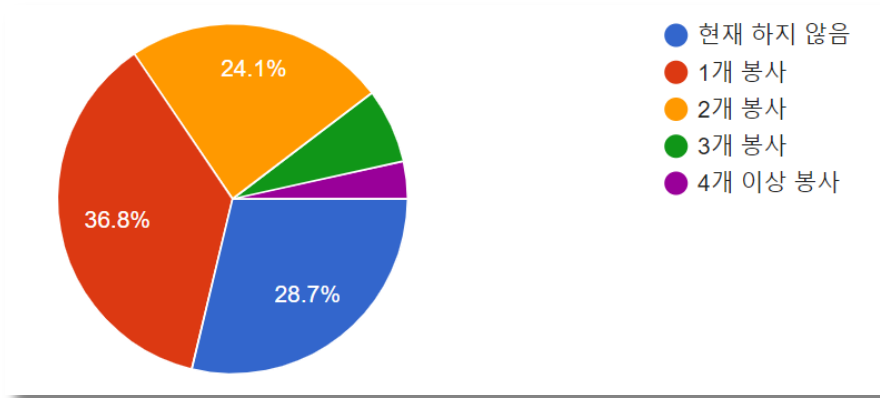
응답자 중 4명(4.6%)은 소그룹(목장) 활동을 한 지 2년 이하였고, 5년 이하는 14명(16.1%)였다. 6~10년 이하는 21명(24.1%), 11~15년 이하는 26명(29.9%), 16년 이상 활동한 응답자도 22명(25.3%)나 되었다. 즉 11년 이상 한소망교회에서 소그룹 활동한 응답자가 전체의 55.2%로 절반을 넘어섰다. 6년 이상 활동한 응답자를 합하면 전체의 79.3%나 되는데 이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에 절대적으로 익숙한 성도들이기에 그들의 인식 변화 결과는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림30> 설문 응답자들의 소그룹(목장) 활동 연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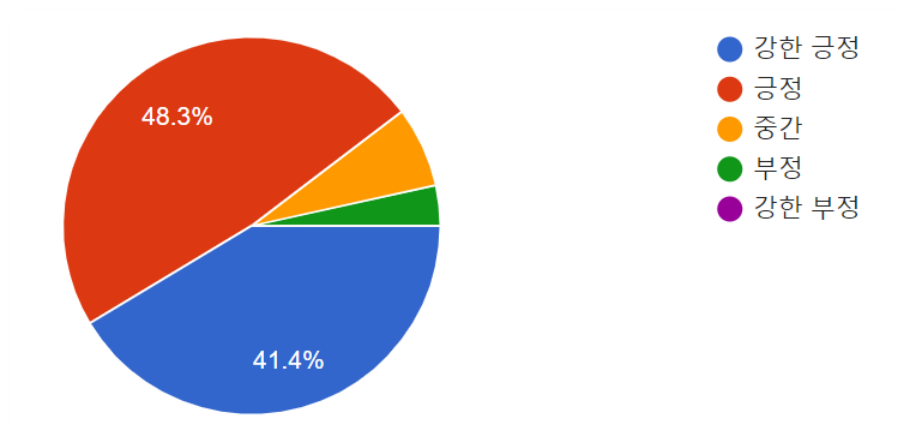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예배 출석 외에 사역(섬김)을 얼마나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명(28.7%)가 ‘현재 하지 않는다’ 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62명(71.3%)은 한 가지 이상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적극적인 성도들이므로 나타났다. 4개 이상 봉사를 한다고 답한 성도도 3명(3.4%)이 있었다.

<그림31> 설문 응답자들의 예배 출석 외 사역(섬김) 현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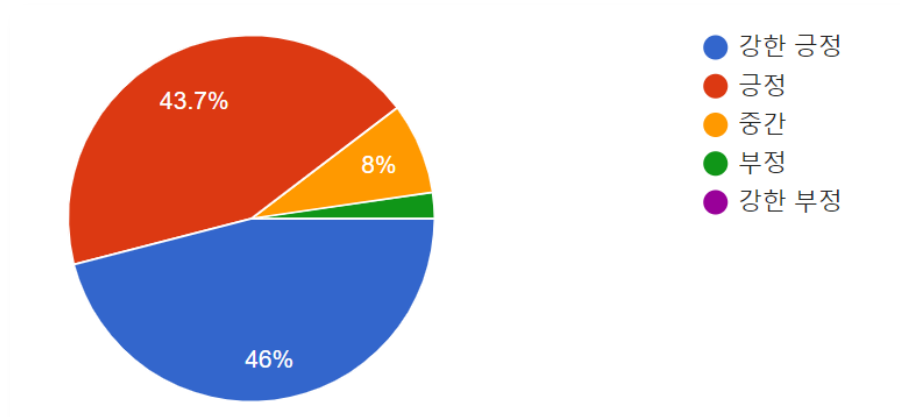
‘6.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6.5%가 긍정적(강한 긍정 또는 긍정)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부정 또는 강한 부정)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어진 ‘7. 주일예배는 등록된 본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라는 문항에도 89.7%의 절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눈의 띄는 차이는 있었다. 첫 번째로 6번 문항에서 79.3%에 달했던 ‘강한 긍정’의 대답이 이번에는 46%로 눈에 띄게 줄은 것이다. 두 번째로 6번 문항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던 부정적인 답변을 3명(3.4%)이 내놨다.

<그림32> ‘7. 주일예배는 등록된 본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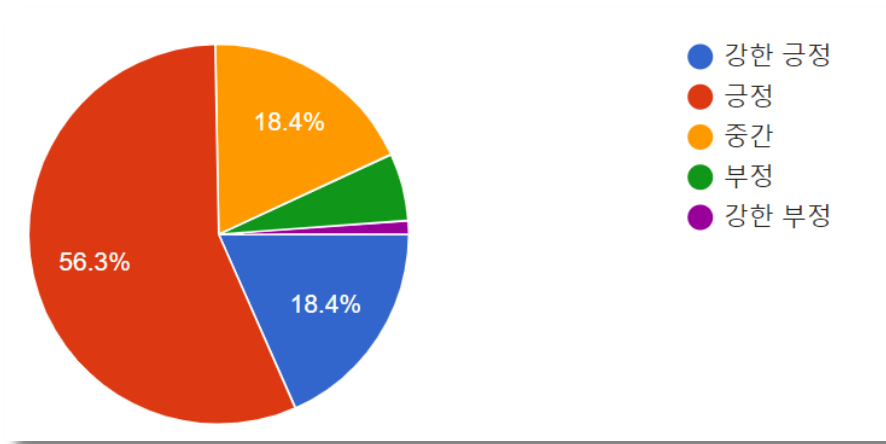
‘정해진 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이어 ‘정해진 시간’에 대한 인식 질문을 했다. ‘8.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89.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역시 부정적으로 답한 2명(2.3%)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수치는 7번 문항의 대답과 비슷했다.

<그림33> ‘8.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한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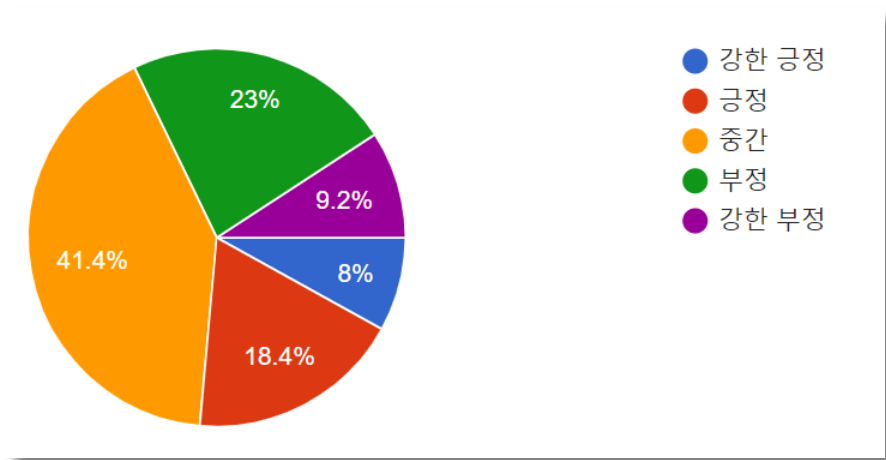


한소망교회의 성도들은 주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90% 가까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까? 9번, 10번 질문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언제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다시보기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9.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현장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라는 문항에 무려 74.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중 ‘강한 긍정’도 18.4%나 되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성도는 6명(6.8%) 뿐이었다. 그러나, ‘10. 자유롭게 드리는 <다시보기 온라인 예배>도 현장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라고 이어서 물어보았을 때는 26.4%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그중 ‘강한 긍정’은 8%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대답이 전체 32.2%로 확 올라갔다. 그중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보다 많은 9.2%였다. 똑같이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인데도 ‘정해진’이라는 표현이 ‘자유롭게’로 바뀌자 성도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식 속에 유비쿼터스의 3A(Anytime, Anywhere, Anything)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34> ‘9.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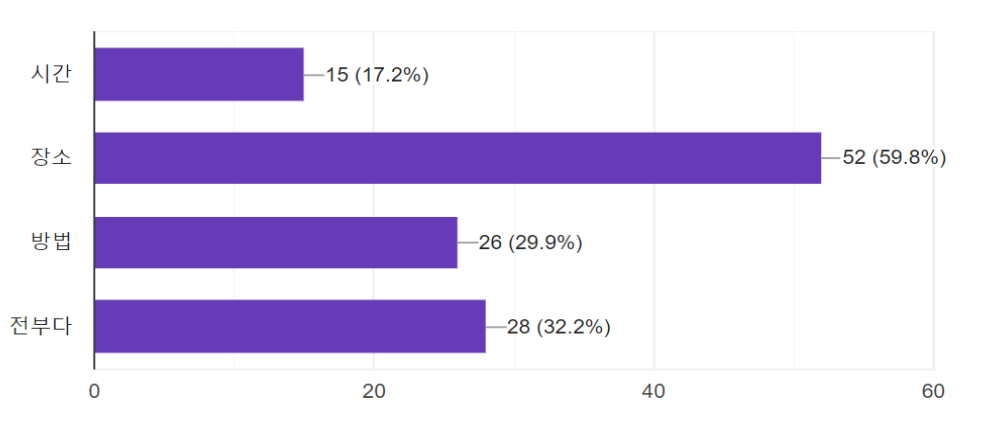
<그림35> ‘10. 자유롭게 드리는 <다시보기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결과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지난 1년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전통적 주일예배 성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11.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주일성수(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 라는 문항에서 절반이 넘는 62.1%가 인식 변화를 느낀다고 대답했다. 인식 변화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성도는 13명(13.7%)밖에 되지 않았다. 과연 성도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인식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예배의 시간과 장소, 방법이라는 3가지 분야에 대해 물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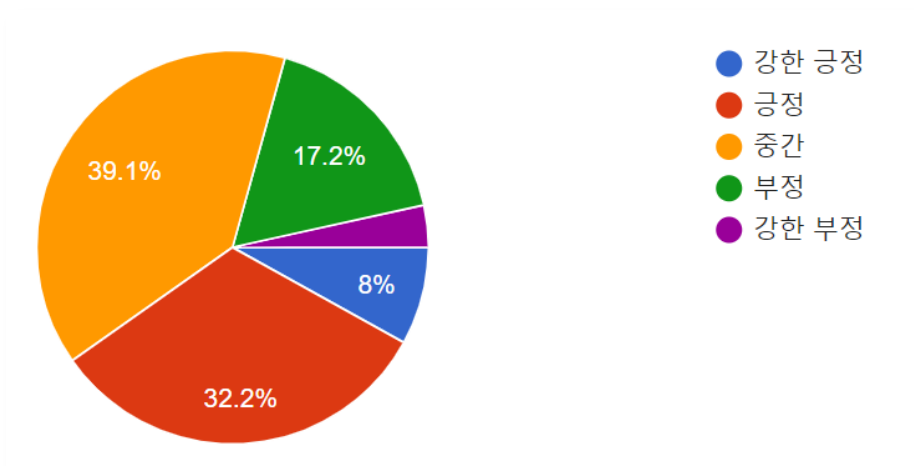
<그림36> ‘11-1.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인식변화가 생긴 분야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결과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1년간 경험하면서 59.8%가 예배 장소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시간, 장소, 방법 세 가지 모두에서 인식의 변화를 느낀다고 답한 성도도 32.2%나 되었다. 정해진 것을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주일성수 개념이 확고하며, 자유로운 예배에 대한 거리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니면 신앙의 위기로 생각하고 있을까? 인식 변화를 느낀다고 답한 성도들에게 다시 ‘11-2.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생긴 인식 변화는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라는 문항에 답하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40.2%의 성도들이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내놓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0.6%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마저 그중에 ‘강한 부정’은 3명(3.4%) 밖에 없었다.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대답은 39.1%의 ‘중간’ (잘 모르겠다)이었다.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인식 변화에 대해 아직까지는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인식변화에 대한 평가가 점점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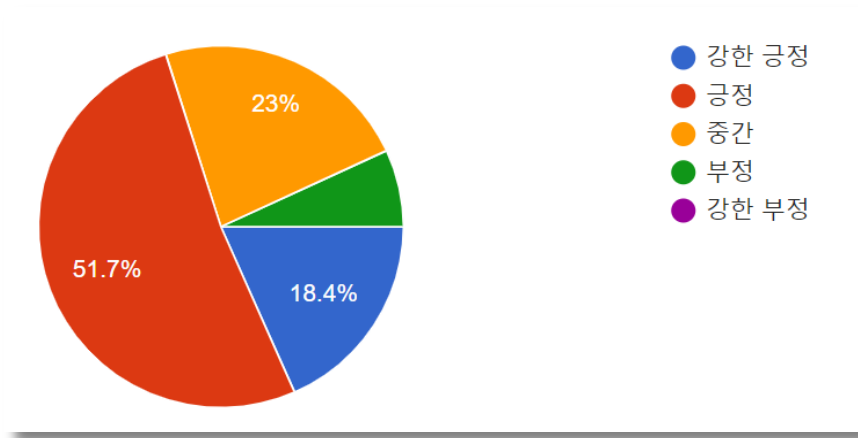
<그림37> ‘11-2.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생긴 인식 변화는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결과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형태(실시간, 다시보기 등)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던 팬데믹 상황이 끝이 나면 온라인 예배는 사라지게 될까? 응답자의 38.2%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더욱 인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도 ‘부정’과 ‘강한 부정’을 합쳐서 32.2%나 되었지만 긍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도 온라인 예배가 사라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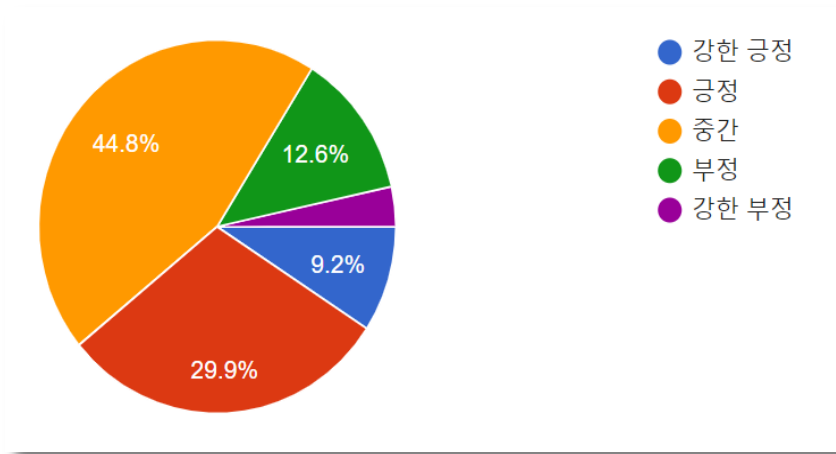
두 번째 섹션에서는 소그룹(목장) 모임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앞서 한소망교회를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를 사역의 축으로 삼는 교회라고 설명한 바 답게 ‘13. 소그룹(목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무려 38명(43.7%)이 ‘강한 긍정’을 39명(44.8%)이 ‘긍정’으로 답했다. 중간(잘 모르겠다)도 10명(11.5%)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대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어진 ‘14. 소그룹(목장)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 한다’는 문항에도 78.2%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일상화되어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생각할까? 앞서 소개한 한소망교회의 온라인 목장 모임 매뉴얼(온통목장)에는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화상 온라인 소그룹 모임’과 ‘음성과 글로만 소통하는 그룹통화 및 채팅 소그룹 모임’ 두 가지가 모두 제안되어 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온라인 소그룹 모임은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을까?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얼굴을 보며 소통했을 때의 인식 결과이다.

<그림38> ‘15.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화상(ZOOM, 구글미트 등) 온라인 소그룹 모임]도 현장 모임과 같은 모임이다.’ 결과



화상 앱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보며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했을 때는 70.1%가 현장에서 모였을 때와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부정적이라고 본 사람은 6명(6.9%)이었다. 그나마 ‘강한 부정’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 모임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자.

<그림39> ‘16. 음성과 글로 소통하는 [그룹통화 및 채팅(카톡 등) 소그룹 모임]도
현장 모임과 같은 모임이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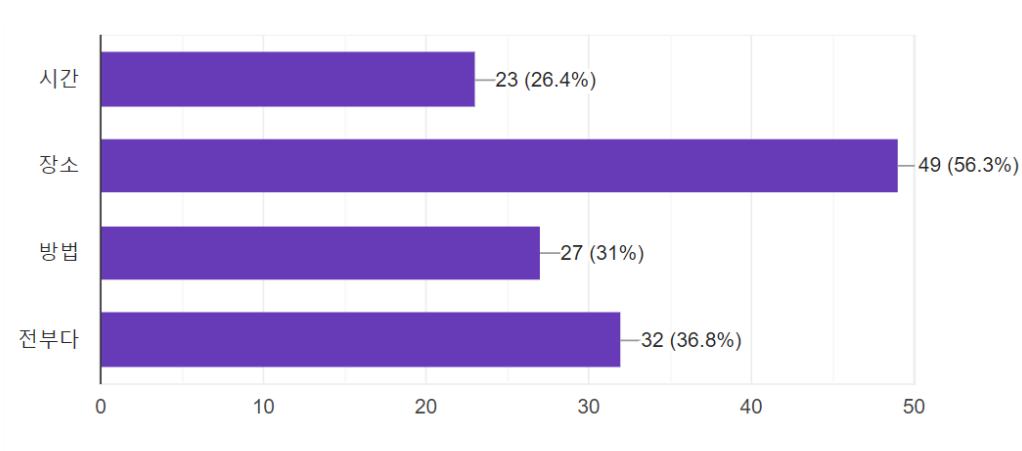


흥미롭게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음성과 글로만 모임을 진행했을 때는 39.1%만이 현장 모임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얼굴을 보며 소통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수치가 떨어진 것이다. 부정적으로 본 대답도 앞선 질문의 6명에서 14명(16%)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중 앞선 질문에서 한 명도 없었던 ‘강한 부정’도 3명(3.4%)이 포함되어 있었다. 온라인 사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대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결과이다. 현장의 한계를 벗어나 온라인 예배,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심방 등의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단순 시청 등 일 방향 위주의 방식보다는 쌍방향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으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온라인 예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기존 소그룹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대답한 성도들은 전체 응답자의 58.6%였다.

온라인 예배로 인한 인식 변화와 비슷한 수치이다.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인식 변화의 분야에 대한 물음에도 온라인 예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장소에 대한 인식 변화가 49명(56.3%)로 가장 많았고, 시간, 장소, 방법 전부다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느낀다는 대답도 32명(36.8%)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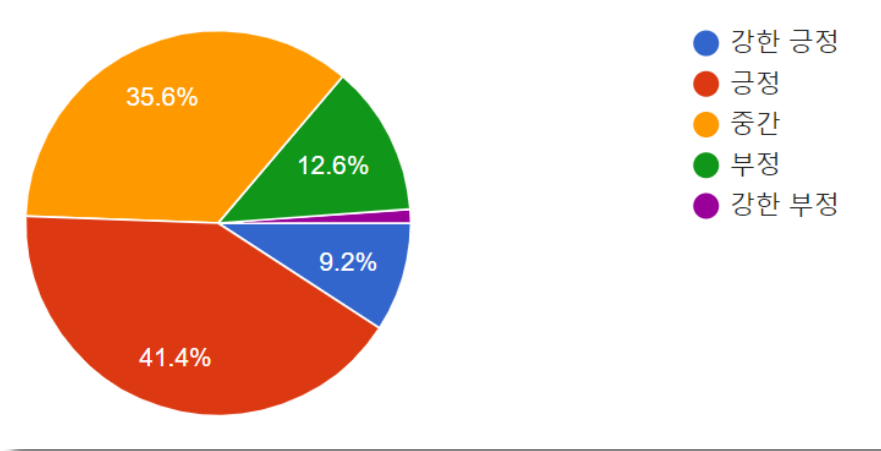
<그림40> '17-1.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인식 변화가 생긴 분야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결과



이러한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온라인 예배와 동일하게 질문했을 때 역시 절반 가까운 50.6%가 긍정적인 인식 변화라고 대답했다. 다만 온라인 예배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부정적인 대답이 32.2%였던 것에 비해 온라인 소그룹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변화라고 대답한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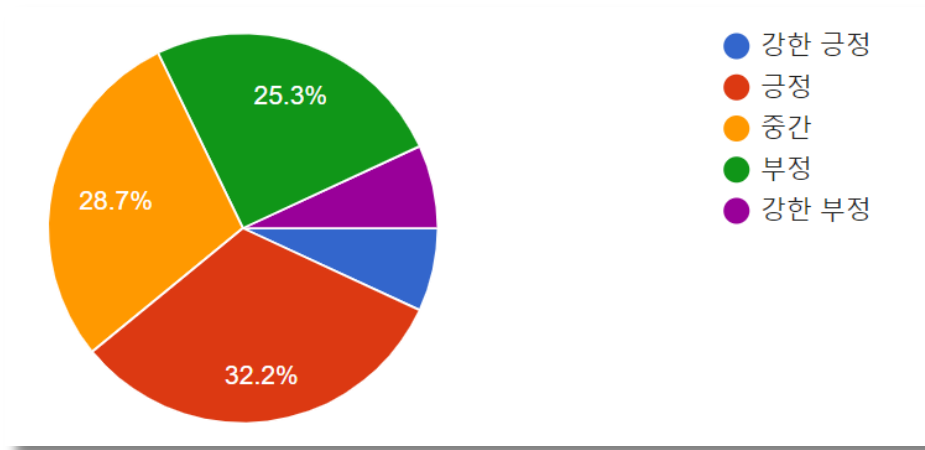
13.7%로 대폭 낮았다. 그중 ‘강한 부정’은 딱 한 명뿐이었다. 예배에 비해서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림41> ‘17-2.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생긴 인식 변화는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결과



2021년 한해 동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해야 했던 성도들은 팬데믹이 끝나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중단할까? ‘18.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소그룹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에 57.5%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부정적인 대답은 18.4%였고, 그중 ‘강한 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적어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보다 훨씬 더 없애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42> ‘18.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소그룹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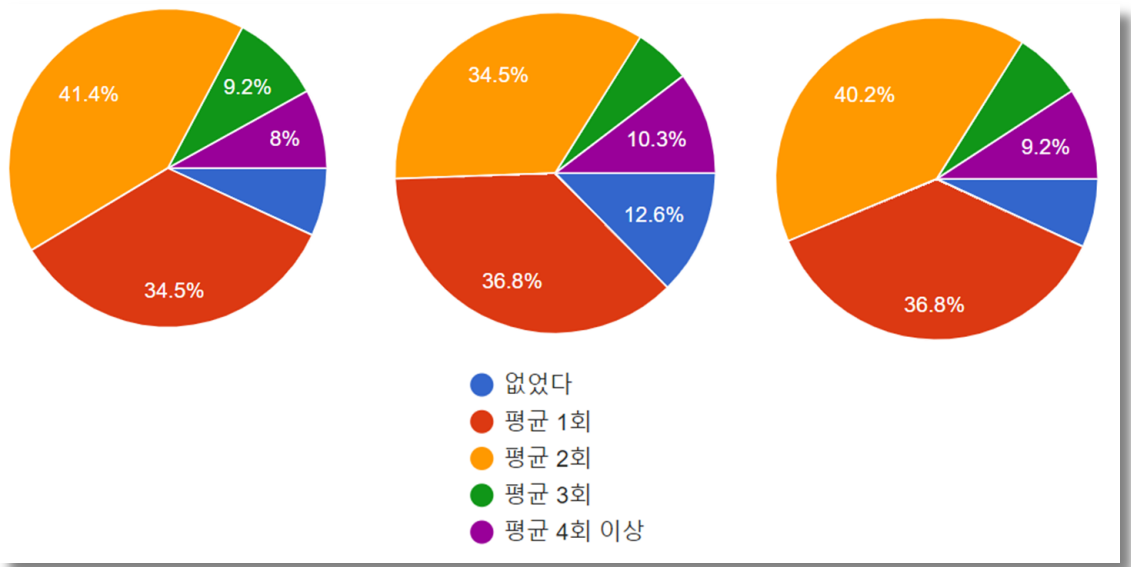


세 번째 섹션에서는 목회자의 대표적인 목양 활동인 심방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이 팬데믹 이전(~2019년) 목회자에게 1년간 얼마나 심방(방문, 상담, 기도)을 받았었는지 조사했는데, ‘한 번도 없었다’가 6명(6.9%), ‘평균 1회’가 30명(34.5%), ‘평균 2회’가 36명(41.4%), ‘평균 3회’가 8명(9.2%), ‘평균 4회’ 이상이 7명(8%)였다. 응답자의 93.1%가 평균 1회 이상 목회자의 심방을 받은 것이다. 팬데믹 이후 작년 2021년에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심방을 받았을까? ‘한번도 없었다’가 11명(12.6%)로 다소 늘었지만, ‘평균 1회’ 32명(36.8%), ‘평균 2회’ 30명(34.5%), ‘평균 3회’ 5명(5.7%), ‘평균 4회’ 이상 9명(10.3%)로 각 범위의 수치는 큰 차이가 없었다.¹¹⁹ 그렇다면,

¹¹⁹ 응답자가 기억하는 느낌상의 수치이지 심방기록에 의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현장 심방을 진행할 수 없었던 기간이 많았던 2021년에 응답자들은 어떻게 목회자의 심방을 받은 것일까? 2021년에 받았던 비대면 심방 횟수를 물어보았다. 결과는 2021년에 받았던 심방 횟수와 거의 일치했다. Covid-19 이전에 했던 심방을 2021년에는 거의 그대로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림43> 팬데믹 이전 이후 심방 횟수 변화와 비대면 심방 횟수¹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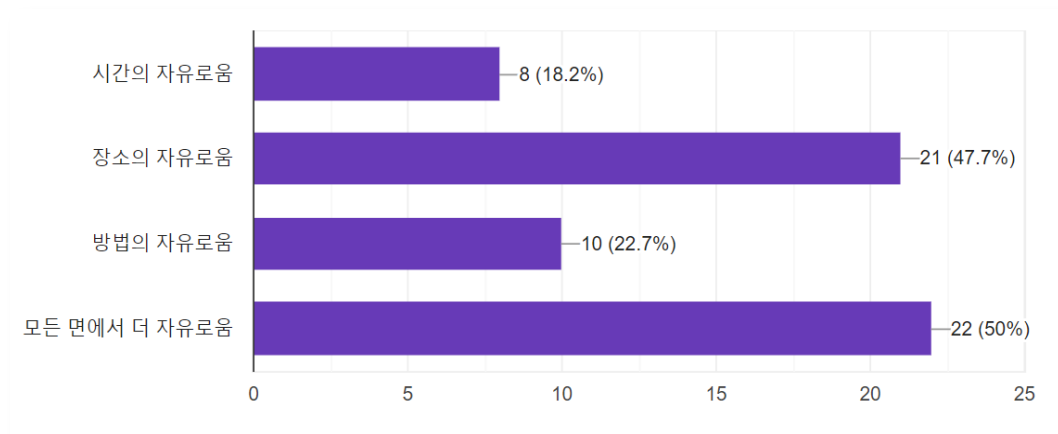


2021년 1년간 비대면 심방으로 목회자의 목양을 받은 성도들에게 ‘22. 대면 심방과 비대면 심방 중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은?’ 의 문항으로 물었더니, 단

¹²⁰ 왼쪽부터 선수대로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심방횟수’, ‘팬데믹 이후(2021년) 평균 심방횟수’, ‘2021년 비대면 심방횟수’의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이다. 보는 바와 같이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나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심방은 거의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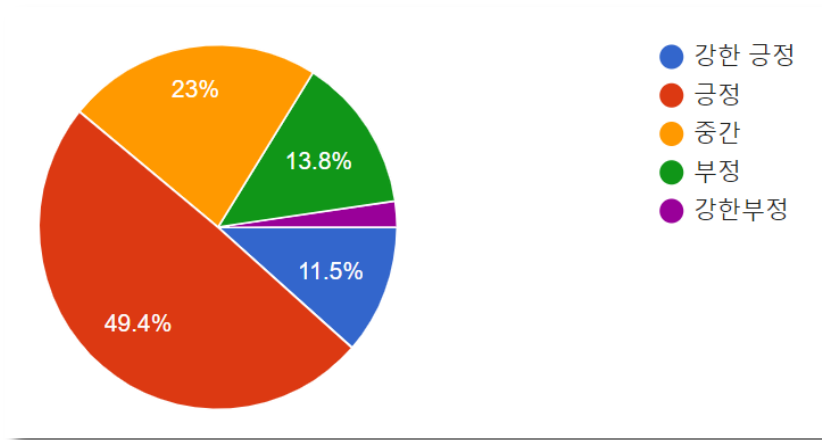
6명(6.9%)만이 ‘비대면’ 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면’ 의 승리는 아니었다. ‘상관없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겠다’ 는 대답이 38명(43.7%)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과 ‘상관없다’ 라는 대답을 합치면 절반을 살짝 넘는 50.6%이다. 팬데믹 이전 100% 대면으로만 심방을 받아왔던 성도들이 팬데믹 이후 100% 비대면으로 심방을 받았을 때, 그 결과 50.6%나 되는 성도들이 ‘꼭 대면으로만 심방할 필요성이 없다’ 라는 의견을 표현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까? 비대면 심방의 어떤 점이 성도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일까? 22번 문항에서 ‘비대면’ 과 ‘상관없다’ 라는 답을 한 44명의 응답자에게 ‘22-1. 비대면 심방이 대면 심방보다 더 유의한 점은 어떤 분야인가?(중복 선택 가능)’ 라고 추가로 질의하였다. 보기로 주어진 것은 ‘시간의 자유로움’ , ‘장소의 자유로움’ , ‘방법의 자유로움’ 세 가지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44> ‘22-1. 비대면 심방이 대면 심방보다 더 유의한 점은 어떤 분야인가?(중복 선택 가능)’ 결과



장소의 자유로움이 응답자의 47.7%로 가장 많았고, 세 가지의 모든 면에서 더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대답도 50%나 되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그리고 비대면 심방의 세 분야에서 긍정적 인식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모두 ‘장소’였다. 두 번째는 방법이었고, 세 번째는 언제나 시간이었다. 유비쿼터스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3A(Anytime, Anywhere, Anything) 중에서 기존의 신앙 방식에 익숙한 성도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서가 아마도 Anywhere, Anything, Anytime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이것은 유비쿼터스 교회로 목회적 전환을 준비할 때 어떤 분야부터 시작할 것인지, 어떤 분야에서 더 주의해야 할 것인지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이 끝나도 비대면 심방이 심방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지금까지의 같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60.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부정적인 대답도 16.1%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의 같은 질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그림45> ‘23. 팬데믹이 끝나도 비대면 심방이 심방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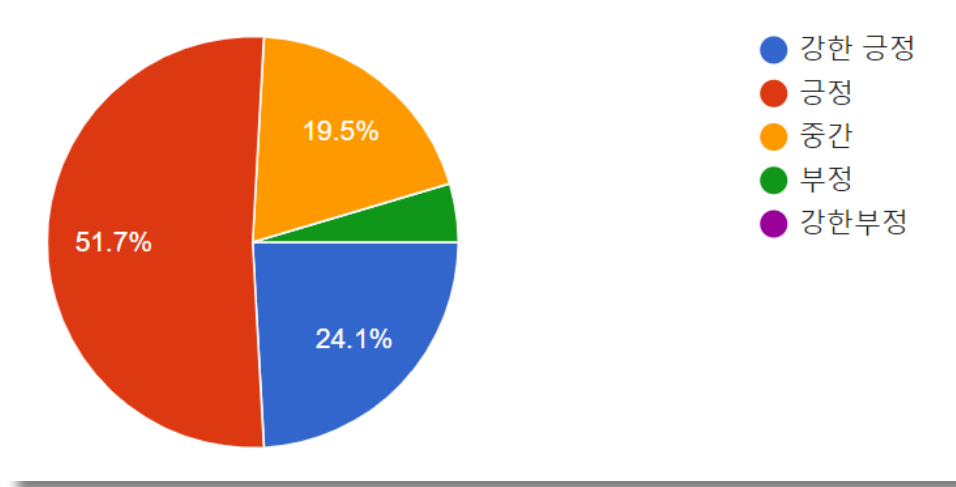
앞서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그룹은 온라인 예배보다 없애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비대면 심방은 없애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수치이다.

마지막 섹션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응답자들에게 주었다. 첫 번째 질문은 ‘24. 정해진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는 문항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25. 다양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는 문항이었다. 설문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서로 모순될 것 같은, 그러나 엄연히 두 가지 신앙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에 성도들의 인식 현황을 알아보려고 함이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단어로 일부러 ‘성경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성경적이다.’ 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와 중요성은 개신교회에서 독보적이다.

성경적인가? 아닌가?라는 논의는 진리인가? 아닌가?라는 논의와 언제나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 성경적이면 맞는 것이고, 성경적이 아니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 가?’ 라고 묻지 않고, ‘성경적인가?’ 라고 질문함으로써 성도들의 답변에 더 큰 의미와 무게감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유비쿼터스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가?’ 라고 질문을 맨 마지막으로 던진 것이다.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흥미롭고 놀랍다. 그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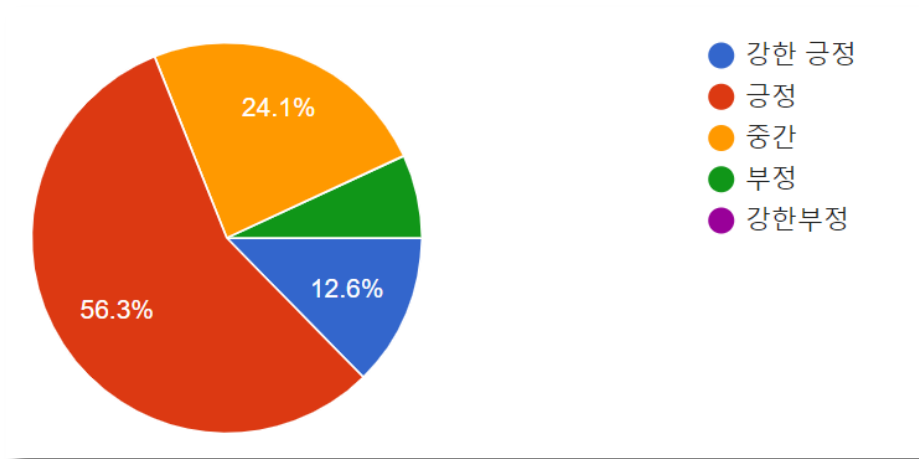
<그림46> ‘24. 정해진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결과



먼저 전통적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을 보자. 여전히 긍정적인 대답이 75.8%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설문을 진행하면서 응답자들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다.

설문 초기의 7번과 8번 문항으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대한 인식을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은 두 번 모두 동일하게 89.7%의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그 응답이 설문 마지막에 가서는 14%가 ‘중간(잘 모르겠다)’ 으로 옮겨간 것이다. 짧은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유비쿼터스 신앙생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자.

<그림47> ‘25. 다양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결과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무려 68.9%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강한 긍정’ 도 11명(12.6%)이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6명(6.9%)밖에 없었고, ‘강한 부정’ 으로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24번과 25번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라. 아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 신앙 가치관과 유티리티스적 신앙 가치관의 수치가 매우 근접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응답자들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될 것 같은 신앙 가치관에 둘 다 긍정적인 대답을 주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신학자들의 연구보다 앞서 성도들이 ‘정해진’ 이라는 가치만이 ‘거룩한’ 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제 VI 장

결론

요약과 평가

인류의 문명은 이제 유비쿼터스 혁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산업혁명이 이룩해 낸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 혁명이 창조해 낸 전자 공간은 유비쿼터스 혁명을 통해 하나의 공간, 즉 유비쿼터스 공간을 창조해 내었다. 바야흐로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시간을 지내면서 한국 교회도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작된 온라인 사역은 신학적 논의를 뒤로하고 이미 현장에서 보편화되었다. 이제 필요한 논의는 지금의 온라인 사역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교회에 대한 것이 되었다. 이 논문을 그 새로운 교회의 표준으로 ‘유비쿼터스 교회’를 제안하며 그 방법론을 연구, 소개하였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나온 용어이며, 유비쿼터스의 핵심은 Anytime, Anywhere, Anything의 3A이다. 이 3A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3A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교회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3A를 인정하는 교회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예배하고 모임하고 사역하는 교회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온라인 예배와 모임에 대한 ‘편리한 예배’, ‘구별함이 없는 기록하지 않은 예배’, ‘신앙의 위기’ 등의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자유하게 한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중단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예배하는 신앙 중심의 삶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회의 신학은 오히려 성령 시대를 가장 잘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회장을 반으로 갈라졌고, 이는 더 이상 구별된 장소인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을 거쳐온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서 성소는 그 명칭을 바꾸어가며 교회 안에 계속 남아 왔다. 어쩌면 유비쿼터스 교회의 출현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의 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세대에 따른 정보의 단절, 교회 대형화와 획일화의 심화, 편리주의, 익명성에 따른 공동체성의 약화 등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성도 다분하다. 한소망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로서, Covid-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적극적으로 모든 목회를 온라인화하였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그중 온라인 예배로 전환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을 ‘역동성’으로 뽑았다. 온라인 예배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건한 예배 준비
- ② 예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 ③ 교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온라인 소그룹 모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①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 ② 교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 ③ 목회자의 세심한 심방 사역

한소망교회에서 진행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그리고 온라인 심방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87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① 정해진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인식 변화를 보였다. 이는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Anywhere, Anything보다는 Anytime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실시간 영상예배’로 시작하여 익숙해진 이후 ‘다시보기 영상예배’로 확장해 감이 필요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사역을 경험한 성도들의 과반수 이상은 시간과 장소, 방법에 대한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회의 목회

공간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하나로 융합되는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한다.

③ 온라인 사역을 경험한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신앙생활하는 것 모두를 성경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가르쳤던 기존의 신앙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 변화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수용 가능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결론과 제언

Covid-19 팬데믹 사태 종료 후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오프라인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라인 교회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이 구분돼서 함께 이루어지는 올(AI1)라인 교회도 정의로는 아쉬움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의 제한 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신앙 활동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정의가 될 것이다.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유비쿼터스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신학적 근거와 실제적인 방법론이다. 아쉽지만, 이 논문은 그 신학적 근거와 실제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유비쿼터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론이며, 이미 성도들에게 그러한 인식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소망교회의 사례는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고하여 각자의 방법론을 정해가는데 작은 도움을 줄 것이다.

김석수는 유비쿼터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압정의 원리’ 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압정은 손가락 끝으로 눌러 벽이나 나무판에 물건을 고정할 때 쓰는 짧은 쇠못을 말한다. 압정의 구성은 뾰족한 몸통과 둥글고 납작한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만일 압정에 납작한 압정 머리가 없이 뾰족한 압정침만 있다면 물건이나 종이를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기도 힘들뿐더러 부착한 물건도 안정감을 잃고 금방 떨어져 버릴 것이다. 뾰족한 압정 침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넓적한 압정 머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압정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사회나 조직 또는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사 일시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¹²¹

유비쿼터스 교회로 전환하길 원하는 모든 교회에도 넓적한 압정의 머리가 꼭 필요하다. 그것은 ‘탄탄한 신학적 근거’,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 또는 전문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유비쿼터스적인 교회 공간’, ‘헌신적인 리더 그룹’, ‘성도들을 향한 더 세밀한 목회자의 목양’ 등이다. 새로운 교회에 필요한 이러한 압정 머리들에 대한 연구와 더 다양한 방법론들이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교회에 대한 논의는 본질과 폼에 모두에 관한 논의이다. 폼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지만 본질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¹²¹ 김석수, *유비쿼터스 라이프와 미래사회* (서울: 집문당, 2008), 48~49.

논의이다. 새로운 품의 변화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본질까지 변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며 두려움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이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니다. 김영래는 미래교회와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교회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가득 찬 예배나, 사이버 교회의 등장과 같은 문명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미래교회는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억’ (remembrance)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¹²²

유비쿼터스 교회가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적용에 더 폭 넓은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교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앞으로 이 새로운 교회 표준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본다.

¹²²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0), 21.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 C. S. Lewis,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Macmillan, 1955
-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번역서적

-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07
- Richard Hunter, *유비쿼터스 :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윤정로, 최장욱 역, 서울: 21세기북스, 2003
- Louis Berkhof, *벌콰조직신학(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 W.David Stevenson, *초연결*, 김정아 역, 서울: 드림북스, 2019
- M. Rex. Miller, *밀레니엄 매트릭스*, 김재영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A. A. 앤더슨, *WBC 성경주석: 사무엘하*, 권대영 역, 서울: 솔로몬, 2001

한국어서적

-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0
- 양순옥, 김성석, 정광식, *사물인터넷으로 발전하는 유비쿼터스 개론*, 파주: 생능출판, 2012
- 안중호, 문재웅,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해*, 서울: 집문당, 2007
- 김윤진, 권혁태, *유비쿼터스 개론*, 서울: 문운당, 2006
- 김석수, *유비쿼터스 라이프와 미래사회*, 서울: 집문당, 2008
- 류영모, *COVID19 재난시대의 교회*, 파주: 한소망교회, 202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VOL2*,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하 제 1-10장*, 서울: 제자원, 2012

한소망교회, *주님의 심장속에 있는 교회-한소망교회 30년 이야기*, 파주:

한소망교회, 2021

류영모,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서울: 서로 사랑, 2002

한소망교회, *한소망 올(A11)라인 목회매뉴얼*, 파주: 한소망교회, 2021

케빈 리,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서울: 두란노, 2021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조정환, “유비쿼터스 기술과 현대 사회구조 변화의 관계고찰”, *아주대학교*(2010)

김순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교회 예배 대안 모색: 삶 속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예배 지평 확장.”, *신학과 실천*77 (2021): 39-66.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2010): 337-365.

박일민, “사이버 시대의 사이버 교회는 타당한가?”, *교회와 신앙*, 2001년 12월호

류영모,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유비쿼터스 교회”, *교회성장(CG) 3월호*(2021)

웹사이트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73828?sid=100>

(2021년 12월 29일 접속)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7058500002?input=1195m> (2021년
12월 29일 접속)

두산백과 doopedia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9774&cid=40942&categoryId=32841>

(2021년 12월 29일 접속)

네이버사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e7078f6ba7ab41efaf178ea89c14bbef>

(2021년 12월 29일 접속)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6810&categoryId=58369&cid=5836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6975&cid=59277&categoryId=59279>

(2021년 12월 29일 접속)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8/2009082801260.html

(2021년 12월 29일 접속)

크리스천 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6088>(2021년 1월 26일
접속)

부록1.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Drew University에서 목회학 박사(D.Min) 논문 과정 중인 정찬일 목사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박사논문인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를 위한 목회 방법론(한소망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를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음]을 누르시면 다음 설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섹션까지 설문에 응해주신 후 [제출]를 꼭 눌러주세요. (응답에 따라 추가 섹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익명] 처리로 비밀이 보장되며, 본 설문의 모든 정보는 소기의 목적 외에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문내용>

1. 자신의 성별을 골라주세요. (남 / 여)

2. 자신의 나이를 골라주세요

(1) 30~39세 (2) 40~49세 (3) 50~59세 (4) 60~69세 (5) 70~79세

3. 한소망교회에 출석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5년 이하 (2) 10년 이하 (3) 15년 이하 (4) 20년 이하 (5) 30년 이하

4. 한소망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2년 이하 (2) 5년 이하 (3) 10년 이하 (4) 15년 이하 (5) 30년 이하
5. 교회에서 예배출석 외 사역(섬김)을 얼마나 하십니까?
 (1) 안한다 (2) 1개 봉사 (3) 2개 봉사 (4) 3개 이상 봉사
6. 주일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한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7. 주일예배는 등록된 본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8.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한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9.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0. 자유롭게 드리는 <다시보기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1.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주일성수(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 11-1. (11)번 문항에서 1~3번의 답한 경우만 /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인식 변화가 생긴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1) 시간 (2) 장소 (3) 방법 (4) 전부다

- 11-2. (11)번 문항에서 1~3번의 답한 경우만 /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후 생긴 인식 변화는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2.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3. 소그룹(목장)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4. 소그룹(목장)은 일주일에 한번은 모여야 한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5.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화상(ZOOM, 구글미트 등) 온라인 소그룹 모임]도 현장 모임과 같은 모임이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6. 음성과 글로 소통하는 [그룹 통화 및 채팅(카톡 등) 소그룹 모임]도 현장 모임과 같은 모임이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7.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소그룹(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 17-1. (11)번 문항에서 1~3번의 답한 경우만 /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인식 변화가 생긴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1) 시간 (2) 장소 (3) 방법 (4) 전부다

- 17-2. (11)번 문항에서 1~3번의 답한 경우만 / 온라인 소그룹을 경험한 이후 생긴 인식 변화는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8.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소그룹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19. 팬데믹 이전(~2019년) 목회자에게 1년간 받았던 심방(방문, 상담, 기도) 횟수는?
 (1) 없었다 (2) 평균 1회 (3) 평균 2회 (4) 평균 3회 (5) 평균 4회 이상
20. 팬데믹 이후 작년(21년) 1년간 목회자에게 받았던 심방(방문, 상담, 기도) 횟수는?
 (1) 없었다 (2) 평균 1회 (3) 평균 2회 (4) 평균 3회 (5) 평균 4회 이상
21. 작년(21년) 1년간 비대면 심방을 받았던 횟수는?(화상, 전화)
 (1) 없었다 (2) 평균 1회 (3) 평균 2회 (4) 평균 3회 (5) 평균 4회 이상
22. 대면 심방과 비대면 심방 중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은?
 (1) 대면 (2) 비대면 (3) 상관없다(상황에 따라)
- 23-1. (22)번 문항의 2-3번의 답한 경우만 / 비대면 심방이 대면 심방보다 더 유익한 점은 어떤 분야인가? (중복 선택 가능)
 (1) 시간의 자유로움 (2) 장소의 자유로움 (3) 방법의 자유로움
23. 팬데믹이 끝나도 비대면 심방이 심방의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24. 정해진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25. 다양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예배, 모임, 기도 등)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 (1) 강한 긍정 (2) 긍정 (3) 중간 (4) 부정 (5) 강한 부정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소그룹(목장)검색 및 참여신청 캠페인

함께 찾아 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목장

2022년 1월 1일 ~ 1월 31일

『아직 목장이 없는 당신을 위한 목장
한소망교회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 한소망교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안내배너 클릭

속교회 검색

1속2속3속4속5속6속

7속8속9속10속11속12속

구분 검색

부부여성남성

상세 검색

구분 연령

요일 시간

장소 지역

검색

속	1	지역목장	109	지역목장	박목장, 김사작
목장	1092	목자	이갑단, 최지금	구분	부부
연령	60	요일	금요일	시간	20:00
장소	가정	지역	식사동	참여의	문의하기

속교회별로 검색

구분별로 검색

상세 검색

검색 클릭

문의하기 클릭
(관심목장번호입력)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Chanil Jung

Place and Date of Birth: Buyeo, South Korea, October 17, 1979

Parent`s Names: Kwangchae Jung / Kyeonghee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eodaejeon High School 60, Wolpyeongdong-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1998
Collegia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B.S	Aug 25, 2005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0, 2011
Graduat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Feb 14, 202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Chanil Jung

Name typed

March 12, 2022

Date